

“법인세 내려 氣 살려야 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손경식 경총 회장
대통령 주재 ‘원탁회의’서 건의
文대통령 “정부 힘만으론 부족
범국가적 연대·협력의 힘 믿어”

손경식 한국경제지총협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산업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손 회장은 “비상 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 완화 등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경제활동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손 회장은 “정부도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각종 규제완화 선진화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피해가 큰 항공, 유통, 관광 등의 업종은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며 “공항 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등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해 달라”고도 했다. 이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관리, 산업재해 문제 등 고려할 것들이 생기고 있다”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도 “중요한 것은 위기를 잘 견뎌 일시적인 충격이 일지리 손실과 파산으로 사람과 기업에 영구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파격적인 재정·세제·금융정책으로 지원해주기 바라며,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의 폭과 범위를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5법’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유급 질병휴가·가족돌봄휴가·재난휴업수당 제도화 △간접복지지원제도 요건 완화 △분야별 맞춤형 피해 대책 △대책을 거부하는 반사회 기업에 강력한 특별근로감독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해임을 비롯한 단호한 조치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듣는 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제안과 토론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속도’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 연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특히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코로나19’ 관련기사 2·4·6·9·10·12·14면

4.9% 급락...10년 만에 최저
한달간 28% ↓...외인 12兆 매도
원·달러 환율 10년 만에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 공포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연일 패닉장이 연출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한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12조 원을 팔아치우며 빠져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18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86%(81.24) 급락한 1591.2에 거래를 마쳤다. 2010년 5월 26일(1582.12) 이후 최저치로, 한 달 새 27.96%나 급락했다. 코스닥지수도 5.75%(29.59) 하락한 485.14에 장을 끝냈다. 이날 시가총액은 65조137억 원 증발했다.

코스피 1600선도 무너졌다



외국인은 5일부터 10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 달 누적 순매도 금액은 12조6352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관도 1조285억 원어치의 물량을 쏟아냈다. 반면 개인은 홀로 12조3736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287억 원을 매도한 반면 개인은 621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한편 안전자산은 소폭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2.2원(0.18%) 상승한 1245.7원에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1kg) 현물 가격도 전 거래일보다 1.46%(870원) 오른 6만480원을 기록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20%포인트 오른 1.05%에 거래를 마쳤다.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은 “장 후반 미국 선물이 하락가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시장도 동반 급락했다”며 “특별한 이슈와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팬데믹 확산 공포로 변동장세가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 매물이 출회됐지만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83%) △일본 닛케이지수(-1.68%) △대만 가권지수(-2.34%) △홍콩 항셱지수(-4.56%)와 비교해도 한국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15면에 계속 윤기쁨 기자 modest12@



삼성, 코로나 긴장 속 주총
삼성전자가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삼성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와 전자투표제 실시 등으로 주주는 400명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김기남 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수원=신태현 기자 holjjak@

美 “1인당 현금 1000달러 지급” 발표 직후 ‘재난소득’ 적극 검토 밝힌 당정청

서울시, 117만여 가구 최대 50만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부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미온적이던 태도를 수용하는 쪽으로 선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국민 1인당 1000달러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민구복위원회는 18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가 끝난 뒤 연 브리핑에서 일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당정청회의에서)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사후에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사실상의 수용 입장인 셈이다.

이 같은 입장은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난색을 보였던 정부와 청와대 입장과 확연히 구별된다.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당정청의 기류가 선화한 것은 미국의 파격적 조치와 무관치 않으리라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날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1000달러(124만 원)를 2주 내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여파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민구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험한 적 없는 위기인 만큼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과감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재난기본소득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자 서울시가 곧바로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 7000여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강남 아파트 공시價 26% 올라 ‘보유세 폭탄’

서울 14.75% 상승...전국은 6%
마포 15억 주택 稅부담 50% ‘깡충’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75% 올랐다. 2007년(28.4%)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강남구가 25.57%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 인기 거주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관련기사 3면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 수도 작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 소유자들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99% 올랐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공시가격 산정 결과는 다음 달 8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저가 주택보다 낮다 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시세 9억 원 이상의 현실화율 평균은 72.2%, 30억 원 이상은 79.5%로 끌어올렸다. 9억 원 미만의 현실화율 평균은 68.1%다.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고, 공시가격도 대폭 오른 것이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5.23%)보다 0.76%포인트 높아졌다.

강남권뿐 아니라 비강남지역까지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주택자 중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 21만1247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7가구로 중부세 부과 아파트가 38.2% 증가했다.

시세 15억 원가량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6400만 원에서 올해 10억8400만 원으로 25.5% 뛰면서 올해 처음으로 중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지난해 재산세만 246만 원가량 냈으나 올해는 354만 원가량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기업이미지 제고·제품 홍보
식음료 나눔 '일석이조' 효과

힘내라! TK·의료진...식품업계 '맛있는 응원'



뚜레쥬르, 대구 아동에 빵 2000개



KGC, 전국 의료진에 홍삼정 32만포



스타벅스, 1339 상담원 매일 600잔



미스터피자, 대구 병원 1억원어치 피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국내 유통 시장에서 실제 소비는 바짝 얼어붙었지만, 훈훈한 온기가 퍼지는 곳이 있다.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나눔'을 전파하는 식품 기업들이 주인공이다.

이들 기업은 기부를 통해 착한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자사 제품 홍보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구 지역에 빵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뚜레쥬르는 이번 주 대구 지역 아동센터 28곳을 통해 아동 약 730명에게 뚜레쥬르 빵 2000개를 전달한다.

이번에 기부하는 빵은 뚜레쥬르의 기부 연계형 나눔 캠페인인 '착한빵'을 통해 적립된 나눔빵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대구 지역 아동들을 위해 마련됐다. CJ푸드빌이 2014년 론칭한 '착한빵 캠페인'은 착한빵이 2개 팔릴 때마다 나눔빵(단팥빵·소보루빵)을 1개씩 적립해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KGC인삼공사도 이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억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제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KGC인삼공사가 지원하는 물품은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이다. 30포들이 1만여 박스로 총물량은 32만여 포에 달한다. 기부 물품은 전국 16개 지역 46개 기

관에 배송돼 현장 의료진 및 관련 종사자들이 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부되는 제품에는 안성기, 김성령, 정해인, 유지태, 김지원 등 정관장 모델들의 응원 영상을 담은 QR코드가 부착돼 치료와 방역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도 담겼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현장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섭취 편의성이 뛰어난 홍삼 제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밤낮없이 방역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2월 중순부터 진행해 왔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원 대상 커피 지원 활동을 3월 말까지 연

장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17일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1339 영등포 콜센터와 과천 콜센터, 1339 콜센터와 협력해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등 3곳에 하루 500잔 분량의 커피를 전달하고 주말에는 스틱형 원두커피인 비아와 머핀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원래 2주 동안의 기부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서울 경기지역 1339 콜센터에서 원주, 부산 등 전국 1339 콜센터로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16일부터 기존 3곳의 콜센터 상담 인력이 충원됨에 따라 하루 커피 기부량을 기존 500잔에서 600잔으로 늘

렸다.

박혜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 콜센터 센터장은 "매일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정성이 담긴 커피를 만들어 상담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며 "응원해 주시는 소중한 마음을 이어받아 국민들께 보다 친절한 응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MP그룹의 미스터피자는 도화엔지니어링, 건화엔지니어링, 아리지 CC 등과 함께 대구지역 의료 현장에 1억 원 상당의 피자를 지원한다.

피자 지원은 11일부터 20일까지 영남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의료원 등 대구 지역 7개 상급병원 의료진들에게 씨푸드아일랜드 피자와 음료 등이 전달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올해 3대 경영방침의 하나로 '협력'을 내세운 정지선(사진)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를 위해 잇단 고통 분담 방안을 내놓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는 협력의 문화를 우리 그룹의 핵심 문화로 만들어 나가자'며 '공감과 협력의 조직문화 구축'을 경영 방침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코로나19로 단기간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사정이 더 안 좋은 협력사의 어려움을 나누고

현대백, 카페 200만원·식당 400만원 관리비 감면



힘을 모으기 위해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달 유통업계 최초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협력사에 5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마련한 데 이어 이달 15일에는 매출 감소로 수익이 줄어든 중소기업 브랜드 매장 관리 매니저 3000여 명에

게 100만 원씩, 총 30억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서 나아가 이번에는 중소 식음료(F&B) 매장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전문 식당가의 관리비 감면에 나서 세 번째 상생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15개 점)과 현대아울렛(6개 점) 식품관에 입점한 델리-베이커리 등 식음료 매장의 수수료를 3월과 4월 두 달간 기존 수수료보다 3~5%p(평균 3.9%p)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 인하는 전체 식음료 매장(752개)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716곳이 대상이다. 3월과 4월 적자가 예상되는 326개 식음료 매장에 대해선 수수료를 5%p 인하해 주고, 적자 상황이 아닌 나머지 390개 식음료 매장은 수수료를 3%p 낮춰준다. 이에 따라 중소 식음료 매장 한 곳당 한 달 평균 100만 원씩 두 달간 200만 원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회사 측은 다음 달 협력사에 지급

하는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또 식당가에 입점한 전체 매장(361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279곳(대기업 운영 매장 제외)을 대상으로 3월과 4월 두 달간 관리비를 50% 감면해 준다. 백화점 식당가에 입점한 매장은 매일 수도광열비, 공용시설 사용료 등을 관리비로 내고 있다. 관리비 감면을 통해 이들 식당가 매장은 3월과 4월 각각 200여만 원씩, 총 400여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미선 기자 only@

제13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를 축하드립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질병치료와 영양실조에 의한 저성장증 어린이 성장촉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이원재 교수



상처는 작고 회복은 빠른 최소침습심장수술법을 개발하고, 로봇심장수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한 이재원 교수



암 유전체 연구로 진단과 치료법 개발의 전기를 마련한 주영석 교수



자칫간 질환의 새로운 위험인자를 밝히고 치료 근거를 제시한 이용호 교수

2021년 제14회 아산의학상 추천 안내

● 시상내용

시상부문	기초의학	임상의학	젊은의학자
인원	1명	1명	3명 이내
상금	3억원	3억원	각5천만원

● 추천 가능하신 분

-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학병원, 대학교의 장

● 추천서 접수

- 접수마감 : 2020년 9월 4일(금)
- 접수처 : (우)05505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아산재단 아산의학상위원회
(02)3010-2562 / www.asanfoundation.or.kr

* 자세한 사항은 아산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아산의학상

- 기초의학부분 : 이원재 교수
- 임상의학부분 : 이재원 교수
- 젊은의학자부분 : 주영석 교수, 이용호 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
울산대 의대 흉부외과학교실
KAIST 과학대학원
연세대 의대 내과학교실



아산사회복지재단

항공·버스·해운 500억+ α 추가 투입... 취약계층에 1조

정부, 피해 업종 전방위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관련 업종과 취약 계층에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항공·교통·해운 분야에는 50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고 취약계층에 1조242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여객은 2월 2주차 기준 전년 대비 약 91.7% 감소했다. 인천공항 하루 평균 여객도 16일 기준 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91.6% 감소한 상황이다. 6월까지 6조3000억 원 이상 항공사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착륙료 감면을 애초 6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앞당기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한다. 운항 중단으로 인

항공사 착륙료·정류료 감면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객선사·입점 업체 지원

7세 미만 아동수당 40만원

하위 20% 건보료 절반 감액

한 항공사 정류료도 3개월 전액 면제하고 국제선 항공기 착륙(약 23만 원)에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 납부를 유예한다.

지상조업사에도 계류장사용료와 구내영업료를 무이자로 납부 유예하고 계류장사용료는 20% 감면해 준다. 운항중단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업시설 임대료도 전액 면제한다. 이외에 상업시설은 3개월 납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버스는 2월 5주 기준으로 전년 대비 고속버스는 73%, 시외버스 70%, 시내버스

32%가 승객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월 8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승객 50% 이상 급감한 노선은 운행 횟수 추가 감회를 검토한다.

해운 분야는 한·중 항로는 1월 30일부터 한·일 항로는 이달 9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연안 여객운송도 여객이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한·일 여객선사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 업체를 지원한다.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는 10% 감면을 확대하고 면세점, 편의점 등 입점 업체에는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해 준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긴급경영자금 1사당 최대 20억 원도 지원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을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137만 7000가구)와 차상위계층(31만 가구)에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등 1조242억 원을 지급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도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으면 총보수의 20%에 해당하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준다. 실직, 휴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11만9000가구)에는 2000억 원 규모로 긴급 생계비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84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61만6000가구)까지 50% 감면해 준다. 아울러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2개소를 확충하고 국립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한다.

또 전국 직업훈련기관의 훈련비를 선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 방안'을 통해 훈련 중단 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 대신 훈련 잔여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한다.

이달 16일부터 직업훈련 시설·장비 대부분 원금 상환이 도래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41개 훈련기관의 294억 원이 이에 해당한다. 원격 훈련도 훈련 목적과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폭넓게 인정하고 훈련 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훈련생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생계비 대부분 지원을 강화한다. 대구, 청도, 봉화,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훈련생은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추경 확정... 소비심리 회복할까 17일 11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 확대, 민생안정자금 증액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정된 추경으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18일 방문객의 발길이 끊겨 한산한 서울의 한 대형마트 내 매장 모습. 연합뉴스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외환 스와프시장 불안 완화

외환당국은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불안한 스와프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차원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의 경우 기존 40%에서 50%로, 외환지점의 경우 기존 200%에서 250%로 각각 25%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외화자금시장인 외환(FX)스와프시장에서 나타나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17일 현재 1년물 FX스와프 포인트는 마이너스(-)25원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1일(-26원 50전)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이는 또 6일 -3원 70전에서 마이너스 폭을 급격히 확대한 것이다. FX스와프 포인트가 마이너스 폭을 키운다는 것은 원화보다 달러를

찾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외화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은행선물환포지션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0월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채를 뺀 개념으로 자기 자본 대비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당시에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 제도 도입의 일환이었다.

기재부와 한은 관계자는 "컨틴전시 플랜 중 하나로 최근 스와프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적인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 단계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우선 내놓은 것"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그에 맞춰 추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도확대는 19일부터 적용된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재난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원이면 50조

서울시 30만~50만원씩 지원... 지자체마다 금액 제각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부 지원 사각지대가 부각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각개전투'로 보완에 나선다는 전망이다.

전주시, 화성시, 강원도를 비롯해 서울시까지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각자도생'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기본소득 개념인 재난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각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을 돕기 위해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비상사태에 돌입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일각에서 거론됐다. 야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현금살포'하는 것이냐는 우려를 내놓은 까닭에 17일 국회 추경안에서 예산 증액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긴급 생활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2차 추경에 동력을 보탠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상을 살펴보면, 서울시 거주하는 중위 소득 100%(2019년 기준 3인 가구 월 376만 원, 4인 가구 월 461만 원) 이하 가구로, 총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받는 73만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2인 가구까지는 30만 원, 3인에서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 급여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앞서 박 시장은 10일 예산 4조8000억 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 796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로 6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실직·무급휴직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을 돕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도 수혜계층을 제한한 재난기본

소득 지원에 공감했다.

전주시도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제 시행 재원 규모를 놓고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열을 올리기도 했다. 두 지사가 내세운 재원 규모는 약 50조 원이다.

김 지사는 8일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걷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결단에 여권과 진보 정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에 투입되는 50조 원은 신속한 제2 추경으로 마련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도 2차 추경을 통한 지자체 긴급 지원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방역 장기전 돌입

확진자 해외 유입 사례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종교·요양시설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더해 유럽 확진자 급증에 따른 해외 유입 우려도 커져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93명 증가한 84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100명을 밑돌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6745명(80.2%)은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최근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선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병원장도 추가로 확진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분(병원장)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1~12일부터 두통 증상이 있어서 그때를 발병일로 간주하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선 서구 한사랑요양원에서 현재까지 7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종사자는 17명, 환자는 57명이다. 다

른 요양병원 4곳에서도 13명이 확인됐다. 정 본부장은 "문제가 된 병원의 의료인력은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되, 각 기관과 기업에서 온라인·채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종교 행사 등 방문 자제도 거듭 요청했다.

국내 사태가 수습된다고 해도 추가 해외 유입 우려가 크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이탈리아에는 2만 8980명(사망 2158명), 이란은 1만4991명(사망 853명), 스페인은 9191명(사망 309명), 프랑스와 독일에선 각각 6633명(사망 148명), 6012명(사망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미국(4464명, 사망 78명)도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방역당국은 19일 0시부터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추정사례는 총 65명이며, 이 중 11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17세 사망자와 관련해선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을 확인 중이다. 2차례의 검사에선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추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재는 확진검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박용만 “파격 조치 필요”… 文대통령 “금융지원 속도 내야”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文 “서류 준비에 2~3개월
 걸린다면 아무 소용없어”
 민노총 “집회 연기·회의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경제 주체 원탁회의의 핵심은 ‘금융 지원’과 ‘속도’로 요약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을 살리려면 금융 지원을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경영난에 처한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 완화 등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자금 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라면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주요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까지 마련된 여러 대책, 추경까지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가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해 신속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속도가 특히 필요한 분야로는 금융권이 지목됐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면서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 걸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 공급이 있어야 한다”며 “또 그러려면 대출이 적기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서 범금융권 협약식을 한 뒤 공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별금융사가 아닌 범금융기관 협약식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초청한 경제 주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포함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대 노총이 청와대 행사에 들어온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고 지난해 1월 25일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간담회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국가적 노력이 노동계가 동참해 달라는 당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경영계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비상협약에 나서겠다”면서 “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회 연기뿐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자리에 참여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19일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 단위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단위, 대통령이 결단할 것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원·달러 환율 1245.7원 또 최고치 “1250원 넘으면 1300원 직행할 듯”

뉴욕 선물시장 하한가에 ‘출렁’

원·달러 환율은 1245원을 돌파하며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중 변동 폭도 15원에 달해 8거래일째 10원 넘는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

외환당국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등으로 안정세를 찾아가 싶던 원·달러는 장중 뉴욕 선물시장이 하한가를 맞고 거래중 지되면서 분위기가 급변전했다. 코스피도 9년 10개월 만에 1600선이 붕괴됐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뉴욕선물과 아시아장이 망가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전했다. 외환당국의 미세조정이 없었다면 원·달러는 더 올랐을 것으로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에 대한 공포가 과거 리먼사태 때보다 더 어려운 형국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달러도 사실상 뚜껑이 열렸다는 평가다. 1250원을 뚫는다면 별다른 저항선 없이 1300원까지 직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2원(0.18%) 오른 1245.7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0년 6월 11일(1246.1원) 이후 최고치다. 장중에는 1246.1원까지 올랐다.

1243.0원에 출발한 원·달러는 장중 1231.1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장중변동 폭은 15.0원에 달해 8거래일째 10원 넘는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

역외환율은 하락했다.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236.0/1236.5원에 최종 호가돼 전장 현물환 증가보다 3.25원 내렸다.

은행권의 한 외환딜러는 “장중 CME선물 S&P·나스닥선물 등이 하한가를 맞으며 거래가 중단되면서 분위기가 급변전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리먼사태 때보다 더 어려워지는 듯하다. 당시엔 몇몇 금융기관 문제였지만 지금은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하고 스와프라인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하겠지만 실물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이라 비관론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원·달러 1240원에서 1300원까지는 이렇다 할 저항선이 없다. 뚜껑이 열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은행권 외환딜러도 “안정화되는 가 싶던 환율이 주가 급락에 급변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코스피가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도 급변했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자유무역지역 7곳 수출 창업기업 입주요건 완화

정부가 울산·군산 등 7개 자유무역지역에 수출 창업기업의 입주 요건을 완화한다. 입주하기 위해 필요했던 수출 비중 등의 요건을 입주 후 5년 안에 달성하면 되도록 한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울산 △김제 등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입주 기업에는 관세유보, 저렴한 임대료(주변 임대료의 15~30% 수준) 등 인센티브가 제

공된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제조업은 매출의 30% △지식서비스업종은 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창업지원이 자금이나 기술개발 위주로 이뤄져 제품 생산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생산 부지 또는 건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점을 고려·완화, 수출 지향 창업기업에는 입주 후 5년 내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사업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달나라라고 수출하지 말라는 법 있어?

K-sure는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역보험 상품 및 고객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제6회 K-SURE 대학생 광고공모전 은상 수상작(서경대학교 노동규)을 일부 수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美 ‘돈다발’·유럽 ‘백지수표’... ‘헬리콥터 머니’ 부활

‘코로나 극복’ 파격적 경기 부양책 쏟아내
각국 중앙銀 ‘제로금리·양적완화’ 잇따라
트럼프, 보좌진 반대 꺾고 재난소득 지급
英·佛·獨·스페인 등도 기업 살리기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과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서방 국가들이 전례 없는 돈다발 살포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정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수십 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세계 지도자들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위협에 맞서 전통적인 경제 플레이백(행동지침)을 저버리고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헬리콥터로 돈을 살포해야 한다”고 주장해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0)나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리고 양적완화(QE)에 나서는데 코로나19 대응 전면에서 나선 반면, 정부는 부채 급증 부담에 재정을 풀어 경기를 지탱하는 ‘헬리콥터 머니’를 꺼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 세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끊기고 시장이 연일 요동치자 서구권 국가들이 드디어 ‘헬리콥터 머니’ 금기를 깨기 시작했다. 미국은 아예 현금 다발을 국민 개개인에게 안기는 ‘재난기본소득제’를 새로운 슈퍼 경기부양책의 핵심으로 삼으려 한다. 유럽은 코로나19로 망할 위기에 처한 기업 대출을 보증하는 일종의 ‘백지수표’를 제시하는 방식을 펼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민 1인당 최소 1000달러(약 124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대형 부양책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2주 이내에 이런 재난소득으로 총 2500억 달러를 수표로 지급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4주 후에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도

널드 트럼프 정부는 총 8500억 달러 규모의 종합 경기 대책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규모가 1조2000억 달러로 늘어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므누신 장관과 함께 한 회견에서 “처음에 보좌관들이 국민 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헬리콥터 머니’를 반대했지만 고통에 처한 가계를 위한 즉각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그들을 설득했다”며 “부양책은 크고 대담할 것이다. 의회도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주요국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이날 3300억 파운드(약 496조 원)의 긴급 대출 보증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200억 파운드의 재정 지원도 펼친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지금 이데올로기나 정통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 대담해져야 할 때”라며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450억 유로(약 61조40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했으며 기업 대출을 대상으로 3000억 유로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또 기업 국유화를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독일은 최소 5000억 유로를 대출 보증할 계획이며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에는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페인은 2000억 유로 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그중 절반이 기업을 위한 긴급 대출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재무장관〉

므누신 “美 실업률 20% 될 수도”

의회 ‘부양책’ 신속 통과 압박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1조 달러(약 12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이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하도록 잔뜩 겁을 쫓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의회에 1조 달러(약 1240조5000억 원)가 넘는 경기부양책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5%로 50년 만에 최저인 상황에서 미국 재무장관이 ‘20%의 실업률’을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불안과 해소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므누신 장관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변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

제적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실업률 20%가 아예 현실성이 없는 건 아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두 달 동안 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미국 경제도 몸살이 심해지고 있다.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학교, 술집, 레스토랑, 공장 등이 문을 닫고 있어서다.

항공 및 여행 관련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항공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나오지 않으면 전 세계 대부분 항공사가 5월 말 전에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미국여행협회는 코로나19로 올해 여행 관련 일자리가 460만 개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5000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도 100명을 돌파했다. 청정 지역으로 꼽히던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도 이날 첫 번째 감염자가 발생, 코로나19는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 미국 전역에 퍼졌다. 변효선 기자 hsbun@



태국 방콕에 있는 ‘왓 트라이밋’ 불교 사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전염을 막고자 대대적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원은 5.5t에 달하는 황금 불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방콕/AFP연합뉴스

벼랑끝 내몰린 전세계 항공업계 ‘파산 위기’ IATA “250兆 지원 필요”

보잉, 600억 달러 유동성 제공 요청

글로벌 항공업계가 이른바 ‘에어로매그돈(Aero-mageddon)’ 위기에 놓였다. 에어로매그돈은 ‘항공(Aero)’과 ‘종말(Armageddon)’의 합성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항공사와 비행기 제조업체 모두 벼랑 끝에 놓이자 급부상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 1500억 달러에서 최대 2000억 달러(약 250조 원)의 정부 지원과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ATA는 심지어 정부의 지원이 있어도 이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항공업계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많은 항공사가 파산하고 다른 기업들은 통폐합에 나서 완전히 새로운 기

업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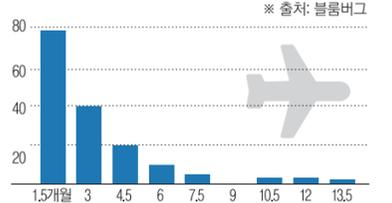
전 세계 약 290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IATA는 5일 올해 글로벌 항공사 매출이 최대 113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IATA는 이날 “이 전망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일어나는 국경 폐쇄와 여행 제한을 고려하지 않아 이미 낡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전망보다 항공사들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본 것이다.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IATA 사무총장은 “업계의 지원 요청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항공사들은 이미 500억 달러의 현금과 수백억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는 18일 오전 항공사 임원들과 전화 회담을 할 예정이다.

보잉은 이날 자사처럼 항공우주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기간별 생존 가능 글로벌 항공사 수



6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잉이 주장한 금액 대부분은 대출 보증용이다. 트럼프는 “보잉을 보호해야 한다. 확실하게 도와야 있다”며 “항공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잉도 좋을 수가 없다”고 화답했다. 여전히 보잉 주가는 회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로 이날 뉴욕증시 전반이 급등했음에도 4% 이상 빠졌다. 또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보잉의 라이벌인 유럽 에어버스도 코로나19 위기가 수개월 더 지속하면 정부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아예 자국인의 해외 출국을 금지한 호주 정부는 국내 관제 서비스 등 항공사들에 부과했던 7억1500만 달러의 비용 대부분을 환급하거나 면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외출금지에도 “난 출근”...머스크의 ‘몽니’

샌프란시스코 테슬라 공장 가동
직원들엔 “아프면 쉬어라” 이메일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직원들로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테슬라 직원들은 CNBC에 “실적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과 추후 해고 가능성에 직원들이 작업을 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급으로 3주씩이나 일터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 자동차 판매가 올해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아직 1분기 및 올해 실적 가이던스 관련 변경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테슬라는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한 와중에도 최근 크로스오버 SUV ‘모델 Y’의 인도를 시작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로 미국 전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근무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베이 일대에 외출금지령이 내려졌지만 프리몬트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은 돌아오고 있다. 머스크 CEO 때문이다.

머스크 CEO는 전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조금이라도 아프는 느낌이 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러나 나는 일을 할 것”이라며 공장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태양광 에너지
1g의 탄소도 배출시키지 않는
100% 친환경 동력원

태양광 패널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가진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
(Q.PEAK DUO)

슬라 에너지 컨트롤러
잔류 태양광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관리 조절하는 시스템

최대 출력 4.4 kW (2.2kW x 2),
최대 속도 6.4 knot (11.85km/hour)

탄소배출 없이 소음없이

쓰레기 수거량
하루 275Kg, 연간 100t

컨베이어 벨트
정밀하게 자동 제어되는
수거 시스템

솔라보트 한 대의 수상 쓰레기 처리량은 하루 275~300kg.
한화가 기증한 두 대의 솔라보트는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를 막는 마지막 보루,
메콩강 하류 베트남 빈롱 지역에서 오늘도 수상 쓰레기를 치우고 있으며
연간 200~220톤의 수상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화가 만든 솔라보트는 단 두 가지 동력만으로 움직입니다 환경에 대한 고민 그리고 태양에너지

지구 산소공급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연간 6,500만톤이나 되는 인류의 식량을 책임지며, 46억년간 생명의 터전이 되어온 바다.

하지만, 해마다 800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오염, 생태계파괴, 기후변화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배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아이러니 또한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1g의 탄소배출도 없이 태양광에너지만으로 움직이며 연간 220톤의 수상쓰레기를 자동수거하는 한화 솔라보트. 지구에 조금의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지구를 돕는 방식에 대해 한화가 긴 고민 끝에 내어놓은 작은 시작입니다.

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그렇게 46억년 간 지켜져 온 우리의 지구와 바다가 46억년 뒤 인류의 소중한 터전으로 계속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연구합니다.

“경제 충격 최소화”... ‘비상경영’ 준비하는 금융 수장들

조용병, 매일 ‘C-레벨 회의’ 진행
윤종규, 계열사 소집 시장 점검
김정태, 위기상황관리협의회 구성
손태승, 시나리오별 대응안 검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급리 인하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비상경영에 착수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확산 추세인 데다 국내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그룹 차원의 종합상황 브리핑 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2일부터 본인이 주재하는 ‘C-레벨’ 회의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의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전략책임자(CS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등이 참여해 금융시장과 산업동향을 점검하는 종합

회의다. 외부 시장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특히 금융시장 상황을 금리, 유가, 환율, 주가지수 등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성장률 등을 기준으로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 전략 수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2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순익목표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한금융은 올해 사업계획을 짤 때 지주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normal), ‘악화’(worse), ‘최악’(worst)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상황에 따라 사업계획을 유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한 지 5개월 만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기준금리가 1% 아래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시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달 23일 본인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비상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은행·증권·손해보험·카드 등 7개 계열사 대표와 지주사 임원들이 참여하는 그룹 차원의 조직이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는 등 세계경기가 악화되

자 KB금융그룹 자산관리전략위원회는 비상소집을 통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16일 금융 위기상황관리협의회를 꾸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 수립에 나섰다. 앞서 김 회장은 그룹사 CEO와 그룹장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3일부터 그룹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과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사의 젊은 실무직원들로 가칭 ‘블루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세운 중장기 전략을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침체를 대비하기 위해 연체율 상상을 예상, 충당금 관리 등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김광수(왼쪽 두번째)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NH농협생명빌딩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NH농협금융 대제사업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 NH농협금융



웰컴 투 디지털

복잡하고 불편하고 까다롭던 지금까지의 금융은 잊으세요

웰컴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로부터 더 쉽고 편한 앞선 금융생활이 시작됩니다

어서오세요. 웰컴디지털뱅크입니다



월경저축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1508호 (2019.04.30)

‘新회계기준 도입’ 1년 연기 ‘자금 충당’ 한숨 돌린 보험사

IASB, 2023년으로 시기 늦춰
당국, 건전성 강화정책 지속 추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8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더 늦췄다. 국내 보험업계는 당장 자본금 충당 압박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 건전성 강화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자본 확충을 지속할 전망이다.

IASB는 전날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이사회 투표는 IASB 위원 14명 가운데 12명이 IFRS17 도입 연기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관련 공지에서 “보험계약의 회계 처리의 질과 비교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IFRS 17의 시의적절한 적용이 필수”라며 “이번 연기 결정으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보험업계 입장에선 일단 ‘소나기’는 피한 셈이다. IFRS17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부채 평가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보험사는 새 기준 적용 이후 채권평가 손실 등을 고스란히 보험사가 떠안아야 한다. 이에 보험사는 자본금 충당 부담이 크다. 현재 국내 보험사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 평균은 286.9%다. 생명보험사는 301%, 손해보험사는 260% 수준이다.

IFRS17 도입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도입 준비 중인 신지급여력제도인 키스(K-ICS)와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 개편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는 키스 도입 여부를 금융감독원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IFRS17 도입에 대비해 함께 도입한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 일정 추가 연기 여부도 변수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LAT 강화 일정을 1년 늦춘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IFRS17 도입 추가 연기와 무관하게 보험사 자본확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전망이다. 당시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IFRS17 시행에 앞서서 자본확충을 하지 않는 보험사가 있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기업銀, 지속가능 신종자본증권 4000억 발행

IBK기업은행은 4000억 원 규모의 조건부 원화 신종자본증권을 국내 최초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5년 내 조기상환 권리가 있는(콜옵션) 영구채 900억 원과 10년 내 조기상환 권리가 있는 영구채 3100억 원이다.

발행금리는 각각 연 2.43%, 연 2.87%

로 국내은행 가운데 역대 최저다. 지속가능채권은 사회 취약계층과 일자리 창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환경 개선사업 등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기업은행은 조달한 자금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美, 항공업계 60조 지원할 때 韓 고작 3000억”

자금 투입규모 작은 데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배제 업계 '주기료 감면' 도움 크지만 세계 혜택 등 빠져 아쉬움

항공업계 정부 지원 주요 내용

- 운수권 및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기 횟수) 유예
- 항공사 대상 사용자 감면 확대 - 착륙료, 정류료(주기료),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국내항공사 조업 수수료 등
- 비운항 증가에 따른 전국 공항 주기장 최대한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항공사 도산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것이 업계 전반적인 반응이다. 대부분이 지난달 항공사 CEO들이 정부에 요청한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그외 다급한 지원책은 물론 대형항공사(FSC)에 대한 자금 지원책 등이 빠져 있어 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주기료·착륙료 등 사용자 감면 △주기장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항공 긴급 지원 방안'을 발

표했다.

운수권 회수 유예, 주기료 면제 등은 항공업계도 학수고대하던 지원책이다. A항공사 관계자는 “주기료 면제와 운수권 유예는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하루에 수천만 원씩 나가는 주기료 면제로 급한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반겼다.

다만, 그외 착륙료, 슬롯 등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감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B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어 주기료와 달리 착륙료 면제, 항행시설 사용료 유예는 도움

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항공업계가 정부에 호소해왔던 세계 지원도 빠져 있다. 항공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항공기 부품 무관세, 국내선 항공유 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이다. 현재 지방세는 LCC만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FSC들에게도 이 같은 완화가 절실하다. 지난해 FSC 양사 농특세 납부액은 203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자금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업계 입장에서는 아쉽다. C항공사 관계자는 “FSC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LCC에 투입되는 지원 규모도 더욱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미국은 항공업계를 가장 역월한 피해자로 보고 60조 원(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산업계에 지원하기로 한 규모가 11조 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3000억 원 지원 대책과 관련해 D항공사 관계자는 “지금 대부분 국제선 운항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5~6개 LCC가 3000억 원을 배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 사에 돌아가는 자금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원 규모가 더 컸으면 한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항공사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급속도로 줄고 있다. LCC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이미 60%가량이 날아간 것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제주항공의 지난해 현금성 자산은 206억 원으로 전년 동기(2173억 원) 대비 10분의 1로 급감했으며 티웨이항공도 반토막 났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3곳의 지난해 현금성 자산은 총 2035억 원으로 1년 만에 58.7%가 사라졌다.

하유미 기자 jscs508@한경대 기자 yeongdai@



2020년형 'LG 나노셀 TV' 출시

LG전자가 '나노셀 TV'를 앞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한다. LG전자는 2020년형 'LG 나노셀 AI 싱큐(ThinQ)'를 최근 국내를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에 순차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나노셀은 약 1나노미터(nm·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TV 패널에 적용한 기술이다. 기존 LCD TV는 고유한 빨간색 파장에 노란색이나 주황색 등 다른 색의 파장이 미세하게 섞여 실제와 다른 빨간색을 보여줄 수 있다. 나노셀 기술은 이러한 노란색과 주황색의 파장을 흡수해 실제와 가장 가까운 빨간색으로 만들어줘 순색(pure color) 표현력을 높여준다.

LG전자는 독자 개발 나노셀 기술을 적용한 LCD TV에 'LG 나노셀 TV' 브랜드를 2017년부터 해외에서 사용해 왔다. 제품 주요 모델은 영상과 사운드의 특성을 학습한 딥러닝 기반의 3세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탑재해 원본 영상의 화질과 사운드를 스스로 분석한 후 최적화한다.

송영록 기자 syr@

코오롱인더스트리 화장품사업 본격화

상표권 등록...패션과 동시 육성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화장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글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18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달 11일과 12일 화장품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산업자재, 필름·전자재료를 주축으로 FnC부문을 통해 패션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나 중국 성장률 감소, 국제환경의 불안정성으로 대외적인 경영환경이 악화되며 패션사업이 고전 중인 상황이다.

FnC부문만 보면 지난해 매출액은 9729억 원으로 2010년부터 유지했던 '1조 클럽' 진입에 실패했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66.1% 줄어든 135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패션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형 사업으로 불황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하에 화장품 사업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5월 자체 스킨케어 화장품 브랜드인 엠큐리(M.CURIE)를 공개하며 성장 가능성을 파악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며 뷰티 업계에서 본격적 사세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윤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규호 전무가 FnC부문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패션사업 성장에 사활을 건 만큼 새로운 카드로 꺼내든 화장품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장품 브랜드의 론칭 시기는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성장산업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산 효율화 및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다.

이달 초 SKC코오롱PI 자본 매각을 마무리하며 확보한 3000억 원의 투자 재원을 아라미드 섬유, 투명PI필름 등에 투자해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수소연료전지 주요 부품 개발과 석유수지 신공정 구축 등에도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차 7세대 아반떼 공개 현대자동차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7세대로 거듭난 '올 뉴 아반떼'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국내 출시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미국 현지 행사는 관객 없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중계됐다. 올 뉴 아반떼 운전석(좌측 사진)은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끈다. 최고출력 123마력의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MPI 엔진을 얹었다. 이밖에 120마력의 1.6 LPG 모델도 나온다. 1.6 하이브리드와 고성능 1.6 터보(N라인)도 출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현대차

삼성, 위기를 기회로...초격차·5G·프리미엄 강화

주총서 “반도체 1위 확고히” 5G라인업 확대 등 전략 발표

삼성전자 경영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확실성'을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메모리 업황 둔화 등에 이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층 더 악화한 대내외 경영환경에 직면했다. 삼성전자는 초격차·5G(5세대 이동통신)·프리미엄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18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부문별 경영 현황을 발표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김기남 DS(반도체·부품)부문장 부회장은

“2020년을 재도약 발판의 원년으로 삼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대해 진정한 글로벌 1위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공지능(AI)과 차량용 반도체 산업 성장,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투자 증대, 5G 통신망의 본격적 확산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메모리 업계는 공정 전환 중심의 투자가 진행돼 전년 대비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부회장은 “메모리에서 4세대 10나노급 D램과 7세대 V낸드 개발로 기술 격차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신성장 시장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IM(IT·모바일)부문장 사장은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무선 사업에서 플래그십 모델부터 A시리즈까지 5G 라인업을 확대하고,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도 강화해 확장된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CE(소비자가전)부문장 사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올해 QLED TV와 프리미엄 가전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B2B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판매에서 더 나아가, 프로젝트 컨설팅에서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엔드투엔드(end to end) 솔루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화시스템, 온라인서 협력사 상생워크숍

한화시스템은 올해 협력사 상생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이다.

협력사 상생워크숍이란 한화시스템이 협

력사와 동반성장하고 소통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해온 행사다. 올해는 50여 개 협력사 임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워크숍을 콘퍼런스 홀로 진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협력사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차원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방안 원가 제도인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와 '하도급 업체 원가 계산에 관한 지침' 등 원가 동향과 개정된 규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정의선, 모비스 사내이사 재선임

정의선(사진)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6곳의 해외 연금 등이 재선임을 반대했지만, 이사회가 주장한 '책임경영 최적임자' 주장이 힘을 얻었다.

현대모비스는 18일 서울 강남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강당에서 43회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의결했다. 임기는 2022년까지다.

이날 주총 개최 전 해외 연금 6곳 등이 정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으나 주총에서 안건은 무리 없이 통과됐다. 찬성과 반대 비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정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은 주주 과반 출석에 의결권 있는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이날 현대모비스 주총에서는 칼 토마스 노이먼, 장영우 등 2명의 사외이사 선임안도 통과됐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재무제표와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고, 결산배당금으로 보통주 3000원, 우선주 3050원도 결정했다. 이사 보수 한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최고 한도액 100억 원을 유지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자본감소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년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의 총액 500,000,000원 중 475,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25,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의 보유주식 보통주식 1,000,000주 중 950,000주를 1주당 250원으로 하여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 회사의 구 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위 기간 내에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19.

주식회사 불꽃넷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희로22길 1, 1층 (대방동, 이투데이빌딩)
사 내 이 사 오 태 석

코로나 확진자 다녀간 점포에 300만원 무상 지원

중기부 추경 3조667억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0년 1차 추경정예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3809억 원 늘어난 3조667억 원을 확보했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용자 8000억 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 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 2조6594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지원 규모는 애초 5조4500억 원 대비 약 3조700억 원 증가한 8조5200억 원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용자 3조1450억 원, 보증 5조1750억 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소상공인 피해 점포 복구 지원,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 원, 소

정부안보다 1조3809억 늘어난 금융지원에 2조6594억 편성 피해복구 등 성장지원 2690억 대구·경북 지역 1조 집중 투입

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에 164억 원 등 2690억 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17만7000개 피해 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 직접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우 점포 2만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 이외 지역 3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 휴업점포 16만

사업명	2020년 예산	2020년 추경(순증)
신용보증기금출연	2100	4022
매출채권보험출연	100	180
기술보증기금출연	1500	669
마케팅지원(공동브랜드)	4	48
지역특화산업육성+(R&D·비R&D)	1802	198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1000	3000
신성장기반자금(용자)	1조3300	1000
소상공인지원(용자·경영안정자금)	2조3000	1조7200
지역신용보증재단출연	1011	523
소상공인성장지원(온라인판로지원)	313	115
시장경쟁혁신지원(온누리상품권)	2313	690
시장경쟁혁신지원(시설개선지원)	234	120

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3000개, 이외 지역 1만8000개)에도 점포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점포(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 온라인 판로 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 1383억 원이 반영됐다.

경제활력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온라인 쇼룸몰입점지원(100억 원), O2O플랫폼

(15억 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품소비 촉진 등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5000억 원 할인(10%) 발행(690억 원), 공동 마케팅(212억 원) 등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 편성됐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2416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외에도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 비용 198억 원이 지원된다. 금융 지원의 경우도 추경 예산 중 7000억여 원이 투입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속도 붙는 '반반택시'

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앱 기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가입자 6만명...기사 8000명 동참 과기부, 코나투스 방문 '적극 지원'



지난해 열린 '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에서 방문객이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반택시'에 힘을 신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코나투스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한 이후에도 지정기업이 사업개시 일정 맞춰 서비스를 출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1호로 지정돼 지난해 8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가입자 6만 명, 기사가 8000명에 달한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 종사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승객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동승이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불명확해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

동성(同姓)만 동승을 허용하는 등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목적지 변경 등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반반택시'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해 택시 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운전자 승객을 선택해 합승시키는 것과는 다른 서비스다.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 지역(1km),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 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실시간 동승 매칭한다. 동승으로 매칭된 승객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반반씩 요금을 지불하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과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이재훈 기자 yes@

홍원표 대표 "글로벌 사업으로 성장동력 확보"

삼성SDS 35기 정기 주총 기업 고객 디지털전환 지원 물류사업 경쟁력 강화 집중



홍원표(사진) 삼성SDS대표는 18일 "올해 해외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경영방침을 '글로벌 사업으로 성장동력 확보'로 정했으며, 견고한 사업 체계와 신기술 기반 플랫폼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잠실 캠퍼스에서 열린 제 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해외 사업 확대 △기업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적극 지원 △물류사업 경쟁

력 강화 등 3가지 중점 추진 사항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배당금 승인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액 10조7196억 원, 영업이익 9901억 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대외사업 실적이 2018년 대비 31% 오르며 성장을 견인했다. 지난해 삼성SDS는 인도·베트남·중국에 위치한 글로벌 IT개발센터를 확대해 글로벌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구조적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자동화 솔루션 브리티워크스(Brity Works)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도 혁신했다.

또한 이스라엘 이과지오, 미국 센티넬, 지터넷 등 기업에 투자해 클라우드, 보안 분야의 신기술을 확보했고, 베트남 IT서비스 기업 CMC에 대한 전략적 자본 투자로 동남아 시장 확대의 기반도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관련 벤처 육성을 위해 스피노프를 통한 투자를 확대했다.

김우람 기자 hura@

김범수 의장 "카카오 시즌2 위한 다음 10년 준비해야"

카카오톡 출시 10주년 맞아 전 임직원에게 동영상 메시지



김범수(사진)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톡 출시 10주년을 맞아 카카오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8일 전 임직원에게 카카오톡과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 "지난 10년이 카카오의 시즌1이라면 이제 시즌2를 위한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를 창업할 때 대한민국에 없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의식이 있었다"며 "그때 사람이나 시스템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일한다는 믿음이

를 가지고 영어 호칭, 모든 정보 공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회사가 성장하고 많은 새로운 크루들이 합류하면서 '카카오스러움'은 희미해져 가는 듯 보였지만, 1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 걸어온 그 길에 녹아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스러움의 문화를 회사의 성장에 맞춰 계승 발전시키고 모바일 생활 플랫폼을 넘어 또 다른 변화의 파고에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IT 기업들의 압도적 규모에 긴장해야 하고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또 다른 10년 앞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주년, 누군가에게는 '벌써'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아직'이라며 '카카오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해야만 하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네이버, 작성자 뉴스 댓글 이력 모두 공개

악플 차단 AI기술도 곧 도입

네이버가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뉴스 댓글 이력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네이버의 변경되는 댓글관리 방안 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네이버 뉴스 댓글 작성자가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댓글의 목록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작성자의 현재 게시 중인 모든 댓글과 댓글 수, 받은 공감 수가 집계된다. 최근 30일 동안 받은 공감 비율, 본인이 최근 삭제한 댓글 비율도 표출된다. 단,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은 노출되

지 않는다.

네이버는 또 이날부터 신규 가입 7일 후 부터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네이버 측은 "회원 가입 후 짧은 기간 댓글 활동을 한 뒤 아이디를 해지하거나 휴면 아이디로 전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실명이 확인된 아이디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앞으로 특정 사용자의 댓글을 차단하는 기능과 인공지능 기술로 악성 댓글을 걸러내는 기능도 도입할 방침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한컴, 마스크 생산기업 '대영헬스케어' 인수

"연간 1억장 대량생산체제 구축"

한글과컴퓨터의 자회사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제조기업 '대영헬스케어'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영헬스케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F94 및 KF80 등급 인증을 받은 마스크 생산 업체다. 현재 연간 최대 생산량 4700만 장 규모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대영헬스케어의 최대주주로서 신규 설비 증설 및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최대 생산량 1억 장까지 가능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번 인수를 통

해 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자체 생산 및 OEM 병행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 품질 관리 및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컴라이프케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던 보건용 마스크의 사업도 이번 인수를 통해 단기간 내에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는 등 방역 관련 제품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NH농협금융

이 봄, 당신의 헌신에서 희망을 봅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방역복을 갑옷 삼아
치열한 현장 속에서 싸우고 계신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묵묵히 이 시기를 이겨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다시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완전한 봄이 오는 그날까지
NH농협은행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구·경북 자원봉사자를 위해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
NH농협은행이 당신을 대신해 **따뜻한 집밥**을 보내겠습니다

※ NH농협은행 SNS에 감사, 응원 댓글을 작성하면 고객 여러분의 이름으로 '농협 집밥선물세트' 1,004개가 기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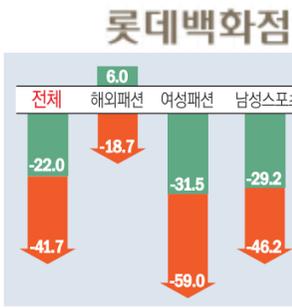
‘코로나 직격탄’ 백화점, ‘봄세일’ 반전 노린다

3월 들어 롯데백 매출 ‘반토막’ 신세계·현대도 30%대 추락
버팀목 ‘명품’마저 마이너스로 내달 초 일제히 정기세일 돌입
파트너사 참가 지원 접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객 발길이 줄어들면서 유통업계의 근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3월 들어서는 백화점 매출을 겨우 지탱하던 해외 명품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들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내달 초 봄 정기 세일로 반전을 노린다.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한 의류 패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세일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백화점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떨어졌다. 여성 패션이 31.5% 추락했고, 남성 스포츠는 29.2% 내렸다. 3월 들어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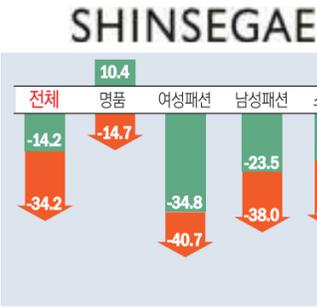
백화점 3사 매출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폭은 더욱 커졌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백화점 전체 매출은 41.7% 떨어졌다. 지난 달 6.0%로 선방했던 해외 패션도 3월 들어서는 18.7% 마이너스 신장세로 돌아섰고, 여성 패션과 남성 스포츠는 각각 59.0%, 46.2% 추락해 하락 폭을 키웠다.

신세계백화점도 2월 14.2% 떨어졌던 매출이 이달 들어서는 15일까지 34.2%로 더 떨어졌다. 여성 패션이 40.7%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남성 패션(-38%)과 스포츠(-35.6%)가 뒤를 이었다. 2월 10.4%로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였던 명품 장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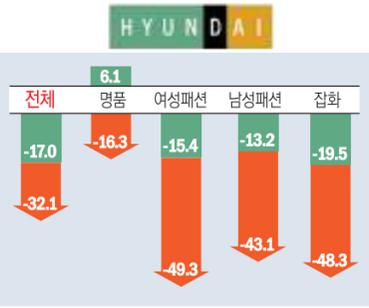
2월 3월 1~15일(단, 현대는 1~12일)



3월에는 -14.7%로 하락 반전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마찬가지다.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체 매출은 32.1% 추락하며 2월(-17.0%)보다 낙폭을 키웠다. 특히 여성 패션(-49.3%)이 부진했고, 남성 패션(43.1%)과 영패션(35.4%)도 매출이 하락했다. 명품 역시 지난달 6.1% 상승했으나 3월에는 -16.3%로 떨어졌다.

다만 위안거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지난 주말 매출이 선방했다는 점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주말(14~15일) 패션 상품 매출은 전주(7~8일) 대

* 출처: 각사



비 16.7% 늘었고, 신세계백화점은 명품은 19.8%, 여성 패션은 18.7% 늘었다. 현대백화점 역시 명품 판매는 32.6% 급등했다. 여세를 몰아 백화점들은 내달 초부터 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당초 백화점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이달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봄 정기 세일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주일가량 늦췄다.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내달 3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봄 정기 세일에 참여할 협력사는 모집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으로

백화점들은 파트너사들로부터 세일 참여 여부와 할인율을 자발적으로 받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자체 협력사 사이트에 공지를 내고, 참여할 업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도 봄 정기세일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할인 행사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다”면서 “봄 정기세일은 3월 말 혹은 4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역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늦어도 4월 초까지 세일에 들어갈 계획이다. AK플라자는 당초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봄 정기세일에 나서기로 했지만, 정확한 시기를 조율 중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계절이 바뀌고 있는 데다, 패션 장르의 매출이 안 좋았던 만큼 특히 해당 업체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재고가 많이 쌓이는 만큼 예년보다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생큐 기생충” 두 번째 전성기

올들어 수출 70여 개국으로 늘어

2월 해외 매출 150만 달러 ‘신기록’



농심 짜파게티가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열풍을 타고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해외 매출 신기록을 작성했다. 해외 소비자들이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를 만들고 SNS에 인증하기 시작하면서 해외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심은 짜파게티의 올해 2월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50만 달러(약 19억 원)로 집계돼 월간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9일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 세계 각지에서 짜파게티 구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달 짜파게티 판매량이 가장 많은 해외 국가는 미국으로 70만 달러(약 9억 원)의 매출을 올려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22만 달러(약 2억7000만 원), 호주 19만 달러

(약 2억4000만 원), 일본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 등 순이었다.

기존에 짜파게티를 판매하지 않던 나라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근 수출이 없던 칠레, 바레인, 팔라우, 수단 등에서 짜파게티 수입을 요청해 올해 짜파게티 수출국은 70여 개국으로 늘었다.

농심 해외영업 관계자는 “짜파게티를 구할 수 없는 나라의 소비자들이 짜파구리 SNS 영상을 접한 뒤 현지 슈퍼나 마트에 짜파게티 판매를 요청한 것이 실제 수출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심은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짜파구리 조리법을 11개 언어로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특히 아카데미 시상식이 미국 현지에서 열린 최대 영화제인 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큰 관심과 반응을 보인 점이 주효했으며, LA 공장 현지 생산 시스템을 통해 늘어난 수요에도 적시적인 공급과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심 관계자는 “기존에 신라면을 주로 찾던 해외 거래선이 이제는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함께 찾고 있다”며 “짜파게티가 짜파구리를 계기로 신라면의 뒤를 잇는 K푸드 대표주자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짜파게티는 올 들어 국내 매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2월 짜파게티의 국내 매출은 370억 원을 넘어섰으며, 농심은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 2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짜파게티는 지난해 매출이 1850억 원으로 신라면에 이어 국내 라면 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착한 가격에 맛 좋은 보조개 사과

18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기존 봉지 사과보다 40%가량 저렴한 보조개 사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사과 농가를 돕기 위해 19일부터 일주일간 ‘보조개 사과’ 4kg 상자를 9980원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이마트

SPC삼립, 美 저스트 ‘비건 푸드’ 유통

독점 판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SPC삼립이 미국의 푸드테크 기업 ‘Eat JUST, Inc.’(이하 ‘저스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스트’는 과학기술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영양 높은 식품을 만드는 스타트업으로 2011년 설립된 이후 마이크 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싱가포르 국 부펀드 테마섹, 홍콩 최대 부호 리카싱, 야후 창업자 제리양 등이 투자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푸드테크 기업으로 떠올랐다.

‘저스트’의 대표 제품인 ‘저스트 에그’는 녹두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달걀맛을 구현한 제품으로 콜레스테롤이 없고 포화지방이 낮아 비건(채식주의자)과 달걀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윤리적,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약 3000만 개(달걀 수 생산 기준)가 판매됐다.

SPC삼립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저스트 에그’, ‘저스트 마요’, ‘저스트 드레싱’ 등 ‘저스트’의 제품들을 ‘SPC프레시푸드팩토리’에서 제조해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 독점 유통한다. 소비자 유통채널뿐만 아니라 파리바게



뜨, 던킨도너츠 등의 SPC그룹 계열 브랜드를 시작으로 B2B(기업간 거래) 시장도 진출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스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조쉬 테트릭은 “한국은 아시아의 핵심 시장으로 최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며 “75년 역사의 식품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SPC삼립과 함께 한국 시장에 ‘저스트 에그’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SPC삼립 관계자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국내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미래 식품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쿠팡 노조 “휴식권 보장... 새벽배송 중단하라”

코로나19 영향 배송 물량 22% ↑ ... “사망사고는 예견된 산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문량이 폭주해 배달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신입 쿠팡맨이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쿠팡 노동조합이 새벽 배송을 중단하고 노동 친화적인 배송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동공공운수노조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 지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가 편의를 위해 ‘노동자 착취’를 받판 삼아서는 안 된다”며 “배송 현장이 죽음에 예견되어선 안 된다. 휴식과 안전 등 더 나은 배송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쿠팡 지부는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할 것 △배송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새벽 배송을 중단할 것 △물량 무게와 배송지 환경을 고려한 배송환경을 마련할 것 △이러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에 성실히 임해줄 것 등 4가지를 요청했다.

쿠팡 노조에 따르면 쿠팡맨 1명이 소화하는 배송 물량은 2017년 12월 1인당 210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월에는 15% 증가한 242개로 나타났다. 이는 무더위로 배송 물량이 급증하던 때로, 물량 증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3월 현재 이때보다 물량이 22% 더 늘었다.

문제는 쿠팡맨 인력은 현재 6500명가량으로 코로나19 전후로 큰 차이 없이 700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본사 측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물량은 ‘쿠팡 플렉스’ 등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쿠팡 노조 측은 본사에서 집계하는 물량은 가구 수 기준인 만큼 가구마다 주문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쿠팡맨 1인당 배송하는 업무량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2019년 8월부터 이달 11일까지 1인당 배송하는 가구 수는 140~150개로 일정하다. 5년 차 쿠팡맨으로 일하고 있는 정진영

노조 조직부장은 “쿠팡맨들은 계약직으로 들어온 뒤 3개월 뒤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물량이 많아도 쿠팡 플렉스와 물량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특히 사고가 발생한 안산 캠프는 조합원이 없어서 물량에 대해 알기 어렵지 못했다”고 말했다.

쿠팡 지부는 쿠팡맨 2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휴식 시간 준수율은 3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년 8개월째 쿠팡맨으로 일하는 조찬호 쿠팡 지부 조직부장은 “물량 압박에 조기 출근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노동자로서 보장된 휴식시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는 법정 근무시간 내 휴식시간을 준수한다고 대응하지만, 우리는 휴식을 취하든 안 하든 근무시간에서 바로 차감된다”며 “쿠팡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살고 싶다. 살 수 있도록 추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코로나19와의 전쟁’ 백신 개발 불 밝힌 K-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후보물질 개발사업’ 국책과제 선정
GC녹십자·셀트리온, R&D 역량 기반 치료제·백신 개발
사태 장기화에 스마젠·제넥신 등 중소 바이오 기업들도 도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과거에 유행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 전염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치료제만큼 예방 백신에 관한 관심이 높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속속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GC녹십자 등 굵직한 백신 기업은 물론 바이오 벤처들도 도전해 눈길을 끈다.

SK의 백신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본부에 공고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국책 과제인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원 아래 코로나19 서브유닛백신 후보물질 제작에 필요한 항원 부위 선별 및 유전자 합성과 다양한 후보물질 제작·생산·확보 등 연구·개발(R&D)을 수행하게 된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빠르게 적용 가능한 백신 제조기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R&D에 돌입한 바 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신규 코로나 백신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안동 L하우스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GC녹십자는 백신 개발을 통해 축적된 R&D 역량을 기반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발현하는 단백질 가운데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해 대량 생산할 방침이다. 백신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면역증강제를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서울대병원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완치 환자의 혈액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용 단클론 항체 비임상 후보물질 발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 확보한 혈액으로 항체 스크리닝 작업을 하고 있다. 연구 인력은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 중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4월 말까지 항체의 중화능력을 테스트하고 5월부터 임상용 항체를 생산하겠다”면서 “개발된 치료용 항체는 단기간 예방효과가 있는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GC녹십자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발굴 착수
셀트리온	서울대병원에서 원치자 혈액 공급 받아 치료용 항체와 백신 동시 개발
스마젠	국제백신연구소와 코로나19 백신 전임상 연구용역 계약 체결
지플라스생명과학	식물 기반 플랫폼에서 재조합 백신 후보물질 확인
제넥신·바이넥스·제넨바이오	DNA백신 ‘GX-19’ 개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동참했다. 각자의 특징점을 살려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스마젠은 국제백신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VSV 벡터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회사에 따르면 VSV 벡터 기술은 다양한 바이러스 유래 감염증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기존 기술보다 안전성이 뛰어나고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효과가 높다.

식물 기반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지플라스생명과학은 백신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에 들어간다. 회사는 식물 기반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조합 백신 후보물질이 식물에서 발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식물기반 플랫폼은 기존 백신 개발에 사용되는 유정란이나 동물세포 배양 기술보다 백신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생산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동물 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오송 식물호밀 시스템을 통해 백신 후보 물질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제넥신은바이넥스, 제넨바이오와 손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DNA백신 GX-19 개발 산·학·연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국제백신연구소와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DNA백신 기술을 가진 제넥신은 ‘GX-19’의 임상비를 비롯한 모든 개발 과정을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위탁개발생산(CDMO)기업 바이넥스는 글로벌 상용화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시료 생산을 책임진다. 이종이식 전문기업 제넨바이오는 GX-19의 효과와 안전성 검증에 위한 영장류 비임상 시험을 담당한다. 컨소시엄은 6월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이르면 7월 중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모더나테라퓨틱스가 개발한 ‘mRNA-1273’의 임상 1상 환자 투

여를 개시했다.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으로, 이르면 7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모더나는 2021년 6월을 목표로 잡고 있다.

백신은 일반적으로 치료제보다 개발 기간이 길고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임상시험 레지스트리 크리니컬트라이얼에 등록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도 치료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RNA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는 변이에 취약해 상용화된 백신이 감염 확산을 막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뾰족한 예방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어 백신에 대한 수요는 높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은 출시까지 최소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의사들도 며칠씩 써” 대형병원 ‘마스크 대란’

공적마스크 수급 일정치 않아
수술실에 아동용 마스크 등장



6일부터 의료계에 공적마스크 수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아직도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공급 대상인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수량은 시작날인 6일 39만6000개에서 10일 100만 개로 점차 늘어나 이날 166만여 개로 확대된 상태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전달되는 공적 마스크는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전달해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다. 이들이 병협에 일주일 단위로 수량을 요청하면 병협이 배송해주는 형태다.

병협에 입고되는 마스크는 12개 업체에서 덴탈, 보건용, 수술용, 소아용 등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며 하루 평균 마스크 물량은 66만9000장 정도다.

병협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1차분은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6일까지 1차분 배송이 완료된 상태며, 2차분은 13일 신청을 받아 16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배송이 진

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덴탈마스크는 110~120원, kf94 마스크는 899~900원에 조달가가 결정돼 통보된 상태”라며 “수량과 마스크 종류별 입고 상황이 일정치 않아 배분 역시 고르진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공적마스크 공급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병원마다 사정에 따라 의료진들에게 나눠주는 마스크는 하루 1장, 일주일 2장 등이어서 의료진들 사이에선 여전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형병원 교수는 “하루에 마스크 1장만 사용 가능하다 보니 외래 진료시 사용했던 마스크를 수술실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여유분이 조금 남은 아이들 마스크를 수술실에 나눠줬나”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교수도 “마스크 수급이 들쭉날쭉해 어떤 날에는 마스크가 떨어져 개인한테 배분되는 공적 마스크까지 동원될 정도”라며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마스크 아껴쓰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병협은 공적 마스크 공급이 2주 차에 접어든 만큼 차츰 마스크 공급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수술용, kf94 등 종류별 마스크 수량이 일정치 않다 보니 병원별로 선별진료소 등 급한 곳에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진료실에 공급되는 물량이 미흡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병원들이 비축분까지 생각해 수량 조절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 물량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앞으로 의료계 마스크 대란이 차츰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엠디문, 바이오드론 기술 美서 특허

바이오드론 플랫폼 신약 개발 기업 엠디문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바이오드론 원천기술의 특허 등록 결정서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엠디문이 보유한 바이오드론 기술은 압출 방식의 엑소솜을 생산해 다양한 난치질환 치료제로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특정 병변 조직으로 원하는 약물을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차세대 약물 전달 기술로 주목받는다. 독자 기술로 세계 유일의 압출 방식 엑소솜을 생산하는 엠디문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면서 글로벌 엑소솜 치료제 개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엑소솜은 세포로부터 유래해 체내 신호전달 기능을 하는 물질이다. 특정 세포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어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세포 배양시 분비되는 엑소솜

은 생산성이 높지 않고 사용 가능한 원료 세포 종류도 제한적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이오드론 원천기술로, 직접 압출 방식에 의해 엑소솜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원료 세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이오드론 기술을 이용해 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엠디문은 내년 본격적인 임상연구를 계획 중이다. 최근 일동제약과 항암제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기업들과의 파트너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배신규 엠디문 대표이사는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을 계기로 바이오드론 플랫폼 기반의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통해 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디엠바이오, 지아이이노와 CDMO 계약

알레르기치료제 ‘GI-301’ 시료 생산

디엠바이오는 지아이이노베이션과 개발 중인 알레르기치료제 후보물질 ‘GI-301’의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디엠바이오는 GI-301의 원료의약품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발, 안정성 시험 등을 진행하는 위탁개발과 약 2500ℓ 규모의 임상 2상 시험 시료 위탁생산을 담당한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의 GI-301은 면역글로블린 E(IgE)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인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음식 알레르기 등의 치료제로 9월 유럽 등에서 임상에 들어간다.

디엠바이오 관계자는 “디엠바이오는 우



수한 생산시설 및 글로벌 규정에 맞는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근 바이오의약품의 CDMO 사업을 본격화하고, CRO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보령제약 ‘듀카로’ 발매 웹 심포지엄 개최

멀티채널 마케팅 본격화

보령제약은 고흡입·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듀카로’ 출시에 맞춰 전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2020 NEXT 듀카로 발매 웹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2월 1일 급여등재된 듀카로의 발매 심포지엄인 이번 행사는 업계 최초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이 아닌 ‘웨бина’를 활용한 온라인 신제품 발매식을 개최, 2524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중용 회장이 좌장을 맡고, 울산의대 심장내과 한기훈 교수가 연자로 나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최신지견과 나아갈 방향 및 듀카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에게 고정용량 복합제를 통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과 향후 치료법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강연 후 질의응답이 실시간으로

이어졌다.

보령제약은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멀티채널 마케팅’을 더욱 확대한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영업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직접 대면방식의 기존 영업마케팅 활동의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듀카로는 ARB(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계열 고흡입 치료제 피마사르탄과 CCB(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고흡입 치료제 암로디핀, 스타틴 계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고정용량 3제복합제다. 유혜은 기자 euna@

11년 표류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 본궤도 오를까

총회서 공석이던 조합장 뽑아 미래에셋 컨소시엄 구성 이후 조합 주도권 갈등 끝낼지 관심 옛 집행부 '무효 소송' 방침 개발사업 항방 결국 법원 손에

11년째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 시행 위탁사인 헌인타운개발 주도로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조합원 임시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 집행부를 새로 선출했다. 헌인타운개발 측은 이번 총회를 "식물조합과 다름이 없었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직무대행체제 6년 4개월 만의 조합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헌인마을에선 2013년 전(前) 조합장이 사망한 후 7년 가까이 집행부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헌인타운개발 등은 집행부 공백 장기화로 사업 재개 기회를 못 찾았다고 주장한

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업이 표류한 건 조합 내부 문제가 크다"고 전했다. 헌인마을은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처음 사업을 주도한 우리강남PFV 등은 헌인마을 일대 13만2379㎡를 연립주택 216가구, 단독주택 45가구로 이뤄진 고급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려 했다. 강남 도심과 가까운 데다 녹지가 풍부해 시장 기대감이 높았다. 문제는 그해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금융 위기다. 시행사였던 동양건설산업과 삼부토건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다. 여기에 조합장 공석까지 겹치면서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뚫었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가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인수해 헌인타운개발 등과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옛 조합 측과 갈등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회를 두고서도 옛 조합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직전 집행부인 김형주 조합사업본부장은 "헌인타운개발에서 0.1㎡씩 토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을 억지로 늘렸다"며 "이런 하자가 있는 총회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 등은 이번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위치



총회 직전 총회를 금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결론 냈다. 옛 조합 측은 곧 본안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항방은 결국 법원 손에 달리게 됐다. 법원이 총회가 적법하게 열렸다고 인정한다면 헌인마을 사업은 헌인타운개발과 새 조합 집행부를 중심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원이 총회가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일지

200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2006년	시행사 '우리강남PFV' 출범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합 출범
2011년	공동 시행사 삼부토건·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신청
2013년	전임 조합장 사망
2015년	채권단 '자율재무구조개선' 연장 거부
2019년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 인수



'제로금리 시대' 고개드는 전세난

이자소득 줄어 반전세·월세 전환 전국 아파트 전셋값 4주째 상승

사상 첫 0%대 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택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한 서울에선 기존 전세 물권이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면서 국지적으로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은 16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 컷'을 단행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75%로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에 들어서게 됐다. 사실상 제로 금리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사정이 다르다.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를 맞아 전셋값 상승 등 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전셋값은 안정되고, 금리가 내리면 전셋값 상승에 전세시장은 불안해진다.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 예금 이자소득이 낮아 보니 수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월세나 반전세로 돌릴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전세 물량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함영진 작방 빅데이터랩장은 코로나 사태로 결혼을 미루거나 이사를 유보해 봄 이사철에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지만 반전세 전환 등이 늘어날 경우 국지적으로 전셋값이 들쭉이는 등 전세시장 불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KB부동산의 2월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57.7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을 크게 넘겼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넘기면 공급이 부족하고, 100 이하면 물량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서울은 이보다 더 높은 160.9를 기록했다. 2016년 6월(171.4)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가까이 우상향 중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4주 연속 0.03% 올랐다. 서울도 한 달째 0.05% 상승폭에 머물러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줄고 있는데도 전세가격은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트 티지 전용면적 59.89㎡형의 전세보증금은 1월 12억 원에서 이달 12억5000만 원으로 뛰었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자이 전용 59㎡형도 지난달 4억·5억2000만 원 선에서 전세 거래되다가 이달 전세보증금 규모가 모두 5억 원을 넘겼다. 최고가는 5억3000만 원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상암DMC 지척...서북권 신주거지 관심

'힐스테이트 에코 덕은' 분양



주택 위주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오피스텔이 알짜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에코 덕은'이 서울과 맞닿은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양 덕은지구 업무 2·3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에코 덕은은 오피스텔과 오피스, 판매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17층, 총 1229실로 지어진다. 이 중 오피스텔은 735실이다. 오피스텔은 각실 면적이 48㎡(계약면적 기준)이며, 단층형과 다락형으로 공급된다. 개방감을 위해 타입마다 천장 높이가 다르며 각 층에는 복도와 연결된 공용발코니 4곳이 설치(2층은 1곳)된다. 실제 단층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장고가 2.4m이며 우물천장은 이보다 높은 2.5m다. 다락형의 경우 전장고가 3.6m이며, 우물천장의 경우는 3.8m에 달한다. 덕은지구는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를 연결하는 가양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마주하고 있다. 고양 삼송지구나 고양 향동지구보다 서울과 더 가깝다. 특히 MBC 본사와 YTN, CJ E&M 등의 미디어 기업들이 몰려 있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DMC) 업무시설과반경 약 2.5km 거리로 가깝다. 가양대교를 건너면 LG사이언스파크, 코오롱 생명과학 등이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다. 남서쪽으로부터 남동쪽까지 난지 한강공원과 월드컵공원이 이어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상암DMC 일대는 MBC 본사, YTN, SBS 등 방송사의 이전으로 협력업체들의 입주 증가와 함께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덕은지구에 관련 업체 종사자의 입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 호재도 눈길을 끈다. 덕은지구 인근에 있는 국방대학교가 2017년 9월 충남 논산으로 이전 후 부지를 사들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도시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방대 부지 30만3000㎡의 개발이 본격화하면 기존 상암DMC와 덕은지구에 국방대 부지까지 연계되면서 서울 서북권의 신(新)주거·업무지역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이다. 문선영 기자 moon@

공포에 떠는 증시... 백약이 무효

코스피 1600선도 무너졌다

▶1면서 계속

삼성전자·SK하이닉스 매도 집중 “위험자산 회피 자금 유출” 추측

이날 외국인인 삼성전자(-1358억 원)와 SK하이닉스(-1064억 원), LG화학(-382억 원), 현대차(-354억 원), LG생활건강(-313억 원)을 가장 많이 매도

했다. 기관은 SK하이닉스(-298억 원), LG화학(-291억 원), 삼성SDI(-247억 원), 현대차(-239억 원), 삼성전기(-189억 원)를 집중적으로 팔아치웠다.

한편 개인은 삼성전자(2986억 원), SK하이닉스(1324억 원), LG화학(620억 원), 현대차(496억 원), 삼성엔지니어링(232억 원)을 매수했다.

노근장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외국인의 매도세는 펀드멘탈에 대한 문제보다는 위험자산 회피 성향으로 헤지펀드에

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특히 에너지와 유가쪽 유출이 큰데 유동성이 큰 한국 시장에서 위험자산을 파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홍콩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국경봉쇄 등의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장이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상황이지만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변동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1.24포인트(4.86%) 떨어진 1,591.20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글로벌 증시 급락에... ELS 손실구간 근접

연초 이후 14.2% 신규 발행
‘유로스톡스50’ 전월비 34% ↓
이달 말 만기 ELS 619개 종목
“원금 손실 가능성 크지 않다”

연초 이후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별 발행금액

기초자산	발행금액	
	공모	사모
유로스톡스 50	12조9102억 원	1조4784억 원
S&P500	12조3011억 원	1조2379억 원
HSCEI	8조4757억 원	8689억 원
나케이225	5조8021억 원	8563억 원
코스피 200	4조5634억 원	9316억 원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17일 기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증시 대표지수가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 대표지수인 ‘유로스톡스50’ 등의 낙폭이 커지면서 이를 기초로 하는 ELS가 손실 위기에 직면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각각 10개, 4개 ELS 종목의 기초자산이 만기 배리어를 하회했다고 공지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10개 종목이 기초자산으로 삼는 ‘코스피200 현선물 레버리지 지수’가 기준 대비 60% 밑으로 떨어졌다. 대신증권의 경우 유로스톡스50 지수가 최초 기준가의 65% 미만으로 하락했다고 공지했다. 모두 ‘낙인(Knock-In·손실 위험) 배리어(구간)’가 없는 상품들이지만 만기시일까지 지수가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글로벌 증시 급락... 유로스톡스50 지수 ‘34% ↓’ =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ELS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공포에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수도 낙폭을 키워,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

는 ELS가 잇달아 낙인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스톡스50, 스탠다드앤amp;푸어스(S&P)500 등 선진국 증시 지수를 기초로 삼는 ELS가 고점 대비 낙폭이 컸다. 17일(현지시간) 유로스톡스50 지수의 경우 지난달 고점(3846.74) 대비 34.22% 하락한 2530.50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은 2월 3393.52포인트 대비 25.47% 하락한 2529.19에 장을 종료했다.

낙폭이 큰 해외 지수는 이른바 ELS의 ‘단골 기초자산’으로 꼽혀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유로스톡스50 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가 총 14조2886억 원(2830종목)어치 신규 발행돼 전체 ELS 중 가장 큰 발행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S&P500(13조1989억 원), HSCEI(9조3446억 원), 나케이225(6조6584억 원) 순이다.

이 영향으로 원금손실 구간까지 떨어질 위험에 처한 ELS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3일 발행된 ‘대신증권 ELS 제8688회’의 경우 HSCEI·나케이225·유로스톡스50 3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 날짜 증가를 기준가격으로 설정했다. 하한 배리어는 기준가격의 65%다. 기준가격대

비 지수가 35% 떨어지면 손실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전날 증가 기준으로 HSCEI, 나케이225, 유로스톡스50 지수는 각각 14.88%, 28.61%, 34.22% 떨어졌다. 유로스톡스50의 경우 지수가 하한 배리어(2500.38포인트)와 근접한 상황이다.

◇이달 말 만기 ELS 619개... 증권가 “원금 손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 특히 만기를 앞둔 ELS의 경우 지수 회복이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려는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ELS는 6개월마다 돌아오는 조기상환, 또는 만기 시점에 하한 배리어 밑으로 떨어져야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ELS는 공모 312개·사모 307개로 총 619개 종목이다. ELS 상품 특성과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만일 만기 시점에 지수가 손실 구간에 머물고 있다면 째깍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승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시장에는 발행 이후 주가가 30~40% 하락하더라도 만기 시점에 만 배리어 내 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기준에 약속했던 이자를 받는 구조인 ‘노 낙인’ ELS가 많다”며 “ELS 만기가 통상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ELS가 만기를 앞두고 있을 경우 리스크가 크지만, 이런 상품이 시장에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줄기세포로 ‘코로나19’ 치료?

“염증 심한 중증 환자에만 효과”

✓테마 체크

정맥 투여시 염증 억제 가능
확증적 결과 아니라 검토 필요
업체 대부분 개발 계획은 없어

중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완치 판정 사례가 나온 뒤, 코로나19 치료제로 줄기세포가 활용될 수 있는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용법에 한해 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업체의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해선 유보적인 관점을 보였다.

18일 미국 임상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스에 따르면 현재 줄기세포를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은 전세계에서 총 6건 진행되고 있다. 모두 중국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3건은 이미 환자를 모집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틀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건수는 각각 63건, 5건 수준이다.

완치 사례도 나왔다. 이달 초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원난성 쿤민대학의 후민 교수는 코로나19에 걸린 65세 여성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실시한 뒤 지난달 중순 완치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 여성은 1월 발병 이후 지속적으로 항바이러스 약물 등을 투여 받았으나 중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일주일 정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이후 중환자실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내 줄기세포 관련 업체들 주가는 최악의 폭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오르거나 보합권을 유지했다.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상장사는 파미셀, 메디포스트, 세원셀론텍, SK바이오랜드, 네이처셀, 차바이오텍, 강스텝바이오텍, 코아시스템 등이다.

특히 네이처셀의 경우 최근 관계사인 알바이오 명의로 ‘아스트로스템-V’를 투여하는 1/2a 임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진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줄기세포의 항염증 성분이 항바이러스제를 듣지 않을 정도로 폐 염증 정도가 심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문지숙 차의과학대 바이오공학과 교수는 “중간엽 줄기세포(MSCs)에는 강력한 항염증 기능이 있는데, 이를 통해 중증환자들이 겪는 사이토카인 폭풍(면역작용이 과도하게 이뤄져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바이오 업체 관계자도 “정맥 투여시 폐를 포함한 전신의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조절하는 줄기세포의 특성이 발현돼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확증적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네이처셀을 제외한 대부분의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들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현재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새로 임상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개미 “삼성전자·셀트리온 올인”... 신용잔액 5000억 넘어

폭락장에서도 반도체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신용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락장이 장기화되면서 반대매매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코스콤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신용잔액(주식을 담보로 증권사 등에서 대출 받은 금액)은 8조5421억 원이다. 코스피는 4조47억 원, 코스닥 4조5374억 원으로 잠재적 반대매매 물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확산 공포로 급락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저점으로 판단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돈을 빌려저가 매수 전략에 나선 영향이다.

실제 이달 들어 개인은 코스피시장에서 7조4720억 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8조3819억 원을 팔아치운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코스피가 장기간

코스피 신용잔액 상위 종목 (단위: 원)

삼성전자	3215억
셀트리온	1999억
SK하이닉스	1228억
삼성SDI	686억
삼성전기	664억
현대차	600억
LG화학	550억

※3월 16일 기준
※출처: 코스콤

하락하면서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추가 폭락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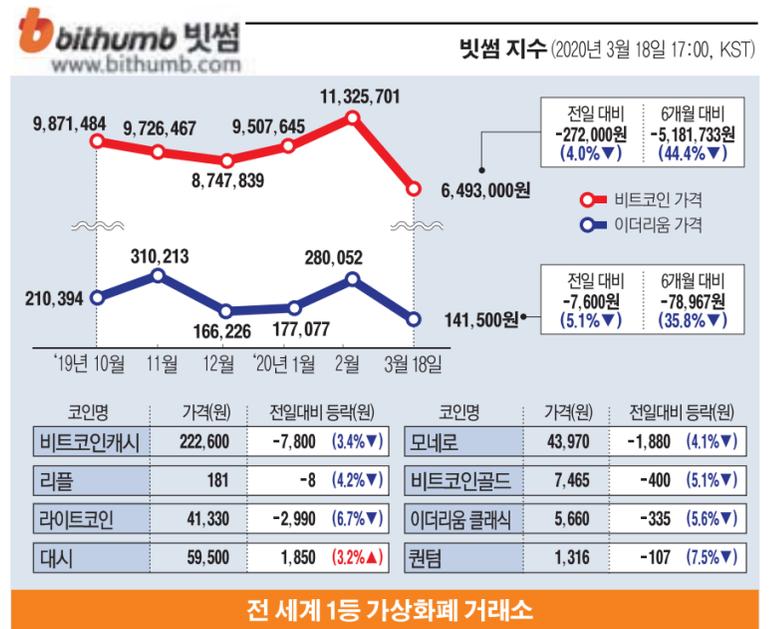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종목을 신용거래가 두드러졌다. 신용잔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로 32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셀트리온(1999억), SK하이닉스(1228억), 삼성SDI(686억 원), 삼성전기

(664억 원), 현대차(600억 원), LG화학(550억 원), 현대엘리베이터(501억 원), LG디스플레이(485억 원), 현대건설(479억 원) 등이 높았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종목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셀트리온헬스케어(945억 원), 에이치엘비(692억), 삼천당제약(488억 원), 헬릭스미스(467억 원), 알테오젠(454억 원), 에이비엘바이오(301억 원), 셀리버리(291억 원) 등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반대매매를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대매매 1일 유예 △담보유지 비율 하향 조정 △반대매매 산정 수량 최소화 등을 결정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혁신성장·인컴·밸런스드, 투자 성향 따라 선택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X 포트폴리오 자문형 랩

미래에셋대우는 미국의 ETF 운용사 글로벌 X가 자문하는 'Global X 포트폴리오 자문형 랩'을 판매하고 있다. Global X 포트폴리오 자문형 랩은 유형 안에 라인업된 3가지 포트폴리오(혁신성장, 인컴, 밸런스드) 중에서 투자 성향에 따라 1개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투자하는 글로벌 랩어카운트다.

혁신성장 포트폴리오는 기존 삶과 투자 섹터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로봇, 빅데이터, 헬스케

어, 전기차 ETF 등에 주로 투자한다. 인컴 포트폴리오는 고배당 주식, 리츠, 우선주, MLP, 커머콜 전략 ETF 등에, 밸런스드 포트폴리오는 혁신성장 포트폴리오에 균형 있게 투자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외 상장한 ETF이며 유동성, 자산규모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한 우량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Global X는 테마형 ETF뿐만 아니라 안정성 관점에서 특화된 인컴형 ETF에 강점을 가진 ETF 전문 운용사다. 특히 UBS와 메릴린치에서 '메이머 모델'로 불리는 ETF 모델 포트폴리오로 8년간 자산을 400억 달러까지 키운 Global X 존 메이머 CIO

가 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에 직접 자문하는 형태로 협업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ETF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라인업된 3가지 포트폴리오 간에는 유선상 유형 변경이 가능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상걸 미래에셋대우 WM총괄 사장은 "Global X 포트폴리오 자문형 랩은 Global X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ETF와 한국과 홍콩, 캐나다와 호주, 미국, 중남미를 잇는 미래에셋의 글로벌 ETF 네트워크가 결합해 높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또 투자 성향에 따라 전략 선택이 가능한 만큼 랩어카운트 계약으로 여러 가지의 ETF에 투자해 더 손쉽게 분



산투자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가입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며 중도 입출금과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고객 계좌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 계약으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저평가된 국내 우량 크레딧채권 선별 투자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크레딧포커스 펀드(채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연초까지 유효했던 대내외 경기회복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대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다. 주요 국가의 주식시장은 일제히 급락했고 유가 역시 바닥을 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하에서는 위험회피 성향이 증가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다. 채권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채권형 펀드 중 변동성 대비 높은 위험조정 수익률을 보이는 '한국투자 크레딧포커스 펀드'를 추천한다. 저평가된 국내 우량 크레딧채권에 선별 투자해 금리 변동 시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게 특징이다. 타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분산에도 적합하다.

이 상품은 신용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있는 종목 △등급안정성이 높고 펀더멘털이 양호한 종목 △지배구조 측면에서 매력적인 종목 △등급 대비 저평가 종목에 선별 투자한다. 또 고등급 채권(RF, AAA)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50개 이상의 발행사에 분산투자해 펀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저평가 크레딧 채권을 발굴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크레딧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개별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크레딧 전문 운용역과 전담 애널리스트가 협업해 투자 의견을 교류하고 편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부실 징후나 펀더멘탈 저하가 예상될 경우 신속히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위험을 관리한다.

이 펀드는 A클래스 기준 선취판매수수료 0.02%와 연간 총보수 0.391%가 발생한다. C클래스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없고, 연간 총보수만 0.411%다. 한편 이 펀드는 3월 말까지 가입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20만 원 이상 펀드를 신규 매입하고 월 20만 원씩 1년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현금 5000원을 지급한다.

만기 짧은 우량채권 위주 '안정적 수익' 추구

삼성증권

삼성코리아단기채펀드

최근 코로나19, 원유 감산 합의 불발 등 요동치는 시장에서 안정적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금 회수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으면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초단기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 코리아 단기채권 펀드'는 잔존 만기가 짧은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신용등급 AA- 이상 자산 비중이 대부분이다. 또 은행채, 금융기관채를 제외한 회사채 투자 비중은 30% 미만으로 조정해 시장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 확보를 추구하는 채권형 펀드다.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등 정부 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비중이 전체 펀드의 50%가 넘는다.

국공채와 통안채는 환매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한다. 공사채는 등급별로 매력도, 발행-만기 상황, 보험-장기 투자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별한다.

은행채 투자 비중은 여수신 동향, M2 증가율 등 시중 자금 동향과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 매력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또 공사채와 은행채의 경우 금리 민감도가 낮은 1년 만기 내외로 구성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내외 경제지표, 통화정책, 수급 등을 분석해 적정 금리 수준을 도출해 현재 금리 수준과 비교를 통해 변동성을 관리한다. 수익률 곡선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금리형 상품의 만기별 상대가치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는다.

회사채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요인, 동종 채권 대비 금리 매력 분석 등 개별 기업 신용 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산업·기업 분석을 거쳐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

공사채·회사채·은행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운용사 자체 크레딧 진단뿐만 아니라 외부 신용평가사의 객관적 의견까지 반영해 종합적으로 운용한다.

글로벌 부동산 분산투자... 연 4% 배당수익

메리츠증권

메리츠글로벌리츠랩

메리츠증권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한 리츠(REITs)를 국가와 섹터별로 분산 투자하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인 '메리츠글로벌리츠랩'을 출시해 서비스하고 있다.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소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해 임대료와 매각차익 등의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투자회사다. 최근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낮은 금리에 리츠 투자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상장한 글로벌 리츠 자산은 국내 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 투자 매력력이 높다. 글로벌 리츠는 2007년 이후로 연평균 4%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규 부동산 매입과 임대료 상승 등의 가치 상승으로 추가적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 또 일반 폐쇄형 실물 부동산은 투자 후 몇 년간 환매가 불가능하지만, 상장 리츠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일반 주식처럼 매수·매도를 통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메리츠글로벌리츠랩'은 이러한 글로벌 리츠에 분산 투자해 세계 주요 도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



과를 누릴 수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받는 부동산 섹터인 임대주택, 스토리지, 데이터센터 등 장기 성장 트렌드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배당수익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도 추구한다. 부동산 투자에 강점을 가진 이시스자산운용이 자문을 맡아 지속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실행한다.

능동적인 시장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해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도 적절한 투자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가입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이고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시 별도수수료는 없다. 매 분기 운용보고서를 발송해 현재 운용 상태와 향후 운용 전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알고리즘 기반 ETF, 매매 비용 대폭 낮춰

대신증권

대신 로보어드바이저

대신증권은 국내외 ETF에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해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펀드들과 비교 시 판매와 운용에 드는 비용을 대폭 낮춰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유용하다. 특히 운용보수가 제로다.

'대신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 대상을 머신러닝 기법과 블랙-리터란 모델을 통해 찾는다.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100%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대신금융그룹의 금융공학파트가 개발했다.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이 주관한 테스트 베드를 최종 통과했고, 수익률 부분에서도 평균을 웃돌았다. 또 위험에 대한 초과수익 정도는 업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보다 확정적인 미래 수익을 담보하는 것인데, 판매와 운용에서 가장 낮은 비용을 받는다. 고객들의 비용을 수익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보다 확정적인 미래 수익으로 볼 수 있다.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알고리즘 운용 △판매 및 운용보수가 최저 △ETF로 투자 대상을 한정해 변동성과 매매 비용 절감 등이다.

'비용의 복리' 효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비용은 장기 투자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 비용을 줄이게 되면 투자자들이 받는 수익은 커지게 된다.

예로 연 2%를 수수료(일부 주식형 펀드)로 지급해야 하는 펀드에 매월 100만 원씩 30년 투자해 연평균 6% 수익률을 기록했다면, 나중에 받게 되는 총자산 10억 원 중 3억 원을 떼고 받게 된다. 총비용이 30%에 달한다.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기획부장은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운용과정의 투명성도 높은 '로보어드바이저'가 목돈 마련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 투자 목표·니즈 반영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NH투자증권

NH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NH투자증권은 과정 가치의 의미를 살리고,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점운영형 웹 자산관리 서비스인 'NH 크리에이터 어카운트(NH Creator Account)'를 도입했다.

'NH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는 NH투자증권 사내 자산배분 전문가 그룹인 자산관리전략부가 PB와 고객에게 여러 단계를 거친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상품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영업점 PB들의 평

가 기준을 기존의 매출 실적 중심이 아닌 '과정가치' 활동 기반의 평가제도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과정가치'란 영업직원이 고객을 만나기 위한 준비부터 고객의 니즈 파악, 최적의 솔루션 제공,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PB 상담 및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 진단 설문지'를 통해 고객의 투자 목표와 니즈를 파악한다. 이후 작성된 투자 성향과 투자 기간 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모델 포트폴리오(MP)를 선정해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를 반영해 처음으로 PB와 고객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차

일 말부터는 자산배분전략위원회 전략, 시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안(AP)'을 매월 제공한다.

'NH 크리에이터 어카운트'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 있는 투자자산군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펀드, ELS·DLS, 국내외 ETF, 국내채권(장내채권), 해외채권 등으로 고객의 투자 목적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산관리전략부는 자산군에 대한 장내 채권 제안뿐만 아니라, 펀드, 한·미 ETF 등 최종 상품군까지 추천해 PB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상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자산관리전략부는 국내 상장된 약 2만1000여 개의 펀드, 국내외 상장된 약 2500여 개의 모든 ETF에 대한 분류 및 상품 스코어링을 지속해서 실시하며, 과거 누적수익률, 샤프지수, 벤치마크와의 괴리율 등을 계산하여 우수한 펀드와 ETF를 선별해 제시한다.

실물자산 채권 분산투자 안정적 수익 추구

KB증권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들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주식형 대비 낮은 변동성과 안정성을 지닌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전 세계 투자등급 실물자산 채권에 투자하며 다양한 금리 사이클에서 양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를 추천하고 있다.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는 전 세계 실물자산 채권에 분산 투자한다. 실물자산 채권이란 인프라, 부동산, 천연자원 등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기업이나 실물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발행한 투자등급 회사채, 하이일드 회사채 및 대출채권을 말한다.

실물자산 채권은 기반이 되는 실물자산의 자산 보강 효과, 경기 상황 관계 없이 지속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등으로 인해 일반 회사채 대비 부도율은 낮고 회수율은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인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 기대수



익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펀드 운용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300조 원 이상의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담당한다.

신규호 IPS본부장은 "최근 높아진 변동성으로 주식, 채권의 전통자산보다는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대체자산 성격의 실물자산 채권에 투자하는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 역시 우수한 성과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는 투자 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I로 고객 성향 맞춰 리스크·수익률 분석

하나금융투자

하나 THE ONE AI2랩

하나금융투자는 인공지능(AI)을 글로벌 자산 배분에 적용해 투자하는 '하나 THE ONE AI2랩'(하나 더 원 에이아이스퀘어랩)을 유망 상품으로 추천했다.

하나 THE ONE AI2랩은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 환매조건부 채권(RP) 및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다. 인공지능(AI)으로 리스크와 수익률을 분석해 손님이 추구하는 수익률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S 스타일'(Safe) △채권과 주식 비중이 비슷한 'M 스타일'(Moderate) △주식 비중을 높인 'A 스타일'(Aggressive) △레버리지 ETF를 이용하는 'L 스타일'(Leverage) 등 총 4가지 스타일이 있어 기대 수익률에 따라 손님이 선택할 수 있다.

권장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실장은 "투자의 패러다임이 기존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의 머신 러닝과 인공지능 기반 투자로 바뀌었다"며 "하나 THE ONE AI2랩은 하나금융 그룹 내에 융합기술원의 AI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상품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운용하며, 고객들이 각자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4가지로 출시했다"고 말했다.

본 상품은 1000만 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며, 추가 입출금이 가능하다. 추가 입금 최소 금액은 1000만 원이며, 최저 가입 금액을 회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일부 출금이 가능하다. 가입시 원화 또는 투자 대상국의 통화로 납입해야 하며, 가입금액의 연 1.0%가 매 분기 수수료로 후취 부과된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연 단위 자동 연장되며, 고객이 원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세금은 해외주식 매매 및 배당에 따른 과세 체계를 따른다. 별도의 환 해지를 하지 않아 환에 노출되어 있어 투자할 때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26만개 펀드 분석 '맞춤 솔루션'

신한금융투자

신한 NEO AI 펀드랩

신한 NEO AI 펀드랩은 국내 금융권 최초 AI 기반 투자자문사인 '신한 AI'의 포트폴리오 자문을 통해 인간의 판단이 배제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각 시장 상황에 가장 적합한 펀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신한 NEO AI 펀드랩에 탑재된 투자자문 플랫폼인 'NEO'는 IBM이 공동 참여 개발했고 IBM 인공지능 솔루션인 왓슨 익스플로러(Watson explorer)를 활용해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철저한 모델 검증을 통해 과거 30년 이상의 글로벌 빅데이터 학습을 수행해 전 세계 약 26만 개의 펀드를 분석해 우수한 펀드를 선별, 글로벌 투자 기회를 포착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출시돼 있는 공모 펀드 중 베스트 펀드를 선정 후 인공지능 알고리즘(강화 학습) 기반으로 금융 시장을 분석해 가장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는 최적의 펀드 포트폴리오로 운용된다. 각 펀드는 펀드의 다면평가(과거성과평가, 미래성과예측, 펀드규모평가, 운영환경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외부기관평가)를 거쳐 랭킹이 산정된다.

투자 지역별(선진국+신흥국+금, 총 14개 카테고리) 펀드 랭킹을 기반으로 투자 가능한 최적의 펀드



풀(Pool)을 총 50여 개로 구성하고 과거 시장 분석, 현재 금융 시장 진단, 펀드 성과 분석 등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운용되며 2개월 단위 리밸런싱을 시행한다. 따라서 지속성, 적시성, 전문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다.

정정수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장은 "신한 NEO AI 펀드랩은 국내 금융권 최초 AI 기반 투자자문사인 '신한AI'의 고도화된 AI(인공지능) 플랫폼 NEO를 활용한다"며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으로 뉴노멀시대의 대안 상품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신한 NEO AI 펀드랩'의 총 보수는 후취 연 1.4%(분기 후취)며 최소가입 금액은 500만 원 이상이며 50만 원 이상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분기별 리밸런싱... 변동성 낮은 펀드 추천

유진투자증권

유진 대표상품 랩어카운트(중립형)

팬데믹 확산 공포로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2월 출시된 '유진 대표상품 랩어카운트(중립형)'는 유진투자증권 금융상품실에서 매 분기 자신 있게 선정한 10개 내외의 추천펀드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해 운용되는 펀드운용형 랩어카운트 상품이다.

유진투자증권 금융상품실은 자산 및 지역별 시장 상황 분석과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에 따라 유망 자산군을 선정하고 있다. 정례적으로 '상품 전략 포럼'을 개최하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의 현장 의견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과 시장 상황에 맞춘 상품 선정, 분기별 리밸런싱을 통해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 수익 모두 노릴 수 있다.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작년 유진투자증권 추천 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약 13.5%로 나타났다. (2019.12.31 기준)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에도 미래에셋글로벌라이프나미증권투자신탁, 키움글로벌엘터너티브증권투자신탁, IBK플레이낸바닐라EMP증권투자신탁 등 총 10개 펀드를 추천 상품으로 선정했다.



해당 상품은 초고위험 등급으로 공격 투자형 이상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이 가입 가능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매월 보고서를 통해 운용상태와 향후 운용전략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상품의 최소가입 금액은 500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계약 기간 중 추가가입금이나 중도해지, 계약 만기 시 연장이 가능하다. 단 중도해지 시 편입자산(펀드)별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김규환 금융상품실장은 "그동안 유진투자증권에서 추천한 펀드들이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고객들의 투자자산 선택과 리밸런싱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동시에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254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과징금 45억 확정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담당자 관리책임 소홀” 인정 피해자 민사소송 잇따를 듯

254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 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인터파크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고객 1032만여 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 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9개 항목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북한 정찰총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같은 해 말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망

분리 및 내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부과기준에 비해

과징금과 과태료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인터파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가 끝나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기술적·관리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원

고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를 대리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민사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기술적 조치의 무위반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최초의 명시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종용 기자 deep@



꽃밭에는 꽃들이~ 절기상 춘분(春分)을 이틀 앞둔 18일 부산 북구 낙동강 화명생태공원에 조성된 튤립 단지를 찾은 한 가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화명생태공원 진입부와 수생식물원 등에 튤립 12만 송이를 심었다. 뉴스시스

주한 美대사관 유학·취업 목적 비자발급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 미국 유학·취업 등 장기체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9일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미 대사관은 측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유학·취업·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은 대구에 대해 여행경보 최고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를, 나머지 한국 지역에 대해서 3단계(여행 재고)를 발령한 바 있다.

미 대사관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할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며 “이번 조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라임 모펀드’ 1.1兆 규모 줄소송 예고

플루토FID-1호·테티스2호 내주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소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기존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낸 라임자산운용 모(母)펀드인 무역금융펀드 외에 ‘플루토FID-1호’, ‘테티스2호’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직접 챙기고,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도 보이자 관련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

는 이달 중으로 ‘플루토FID-1호’, ‘테티스2호’ 관련 자(子)펀드의 투자자를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애초 20일 2개 모펀드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들과 의견 조율 과정이 더 필요해 이르면 다음 주 중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4개 모펀드(플루토FID-1호, 테티스2호, 플루토TF-1호, 크레딧인

슈어드1호) 및 173개 자펀드, 총 1조6679억 원 규모의 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했다. 이 중 플루토 FID-1호, 테티스 2호에는 각각 9000억 원, 2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묶여 있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누리는 1월에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관련 자펀드의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도 지난달에 이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연

루 의혹이 제기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소환 조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장 전 센터장은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과거 청와대 파견 당시 라임 문제를 막아주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한 피해자에게 “이쪽(김 전 행정관)이 핵심 키다. 사실 라임을 이분이 다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도 이달 안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BRAVO My Life

이달의 주인공은 Noble House

재미

공감

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BRAVO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대학가 '온라인 강의' 시스템 허술 '대혼란'

학생 수천 명 몰려 서버 마비
출석 부르는 데만 40여분 걸려
수업 참석 정확한 안내도 부족



대학들은 '온라인 원격 강의'를 통해 지난 16일 일제히 개강했다. 사진은 온라인 강의를 실시 중인 연세대 교수들의 모습. 사진제공 연세대학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개강이 이뤄졌으나 대학가는 집합 수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온라인 강의 등으로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버 마비로 인한 접속 불량, 실시간 강의에 익숙하지 않아 생기는 각종 사고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국민대·서울대·중앙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등은 16일 수천 명의 학생이 온라인 강의 수강을 위해 접속하면서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돼 어려움을 겪었다.

고려대 경영대학의 한 학생은 "출석을 부르는 데만 40여 분이 걸렸다"며 "학생들에게 미리 웹캠과 마이크를 끄라는 요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음성이 겹치거나, 교수님 대신 학생이 등장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학생 역시 "강의 시간표상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된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공지된 바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방식인 '강의 5부제'를 시행한 학교도 등장했다.

명지대 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로 다른 단과대가 수업을 듣도록 권장하고 있다. 해당 날짜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명지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면 서버가 다운될 것 같다는 예상을 했다"면서 "학생들에게 5일로 분배해 들어오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버 폭주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한상근 KAIST 수리과학과 교수는 "대학들이 앞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온라인 강의에) 차질을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전산 서버가 전 과목 온라인 강의를 염두에 두고 설치되지 않아 이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대학은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진정될 기미가 없는 만큼 온라인 강의 등 원격 수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프라 확충 등 상황 개선에 힘쓰고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KAIST도 16일부터 2주 동안 시행하기로 한 원격수업을 무기한 연장한다.

대학이 제공하는 허술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비싼 등록금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강의 업로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수업이 대부분"이라면서 "온라인 강의 전환 후 강의 없이 과제로만 대체하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권이 침해받는다"며 "1학기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면 2학기 등록 때 감면해 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손현경 기자 son89@**

〈학생부종합전형〉 대학별 학종 평가요소 달라... 맞춤형 준비를

“학업역량·전공적합성·인성·발전가능성 4개 항목 중요”

입시특독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었지만, 올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대학 24.8%로 전년 24.5%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서울권 주요 15개 대학으로 한정하면 학종 비중은 40%가 넘어간다.

교육부는 학종 및 학생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서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수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는 서류와 면접 평가에서 수험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진은 물론 고교명, 수상기관명 등이 모두 가려지고 '학생부 식별번호'가 부여된 학생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원서접수기관을 통해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학생부 블라인드로 인해 학종 평가 방식에 있어 변화는 불가피하다.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18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탁상 달력 옆에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관련 EBS 교재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은 18일 "출신 학교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더 세밀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류평가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면접평가를 신설하거나 면접평가의 비중을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이러한 변화에도 학종에 합격하기 위

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별 학종 평가요소를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소장은 "연세대를 비롯한 주요 6개 대학은 학종의 평가요소를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 4개 항목으로 제시했다"면서 "이러한 표준화된 모델이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와 서강대는 전공적합성을 평가 요소에 포함하지 않는다. 김 소장은 "이처럼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표준화 모델에서 제시한 4개 항목이 학종평가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발전가능성'은 모호한 개념으로 꼽힌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김 소장은 "평소 학생부 관리에서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인 세부적인 평가요소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교육부, 17개 평생학습도시 5억 지원

교육부가 국내 17개 평생학습도시에 총 5억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 성동구·부산 북구·강원 철원군·경기 파주시·경북 구미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이같이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1년부터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167개 평생학습도시 중 61곳이 참여했다. 광역시·도의 예비심사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총 17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 성동구는 관내 대학의 전문인력 등을 지역 평생학습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 대상 인문학 강의, 학생 봉사활동,

등, 주민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대학 네트워크 모형'이다.

부산 북구는 주민들의 4차 산업 수요를 반영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1인 제조 및 창업,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 과정 등을 평생학습 과정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및 미래역량 강화 모형'이다.

충북 청주시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 및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장애인 대상 전문활동가를 육성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 모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야흐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피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선택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메뉴얼과 다르다. 선배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메뉴얼 말고 실전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메뉴얼이자, 혹독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예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된 기술서이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평가 연결,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쾌리드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리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 혜택, 구상된 재능,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이나현 서울 / 208쪽 / 국판변형 / 14,000원

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20-284호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32-9일대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0.3.1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계동 1132-9호 일대	70,083	감815	69,268	서울특별시도시제1996-326호 (1996.12.1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0,083	감815	69,268	100.00	
주거지역	소계	56,468	-	56,468	81.5
	제1종일반주거지역	8,916	-	8,916	12.9
	제2종일반주거지역	1,794	-	1,794	2.6
	제3종일반주거지역	15,577	-	15,577	22.5
녹지지역	준주거지역	30,181	-	30,181	43.5
자연녹지지역	13,615	감815	12,800	18.5	

※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제3종·준주거지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다.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밀도 등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기간: 2020. 3.19. ~ 2020. 4.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2020. 3.19. ~ 2020. 4.16.)
- 열람장소: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02-2116-3868, FAX: 02-2116-4633)
- 관계도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장소에 비치)
-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도시관리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어떤 은행이라도
KB스타뱅킹으로
한번에



오픈뱅킹도 KB스타뱅킹



KB스타뱅킹으로 간편하게
은행이 달라도 출금, 이체, 상품가입까지 한 번에



KB스타뱅킹으로 한눈에
은행이 달라도 잔액, 거래내역까지 한눈에



KB스타뱅킹으로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 간 이체 수수료 무료

*오픈뱅킹은 KB국민은행을 포함하여 총 18개 은행이 참여하는 편리한 금융서비스이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한도는 오픈뱅킹 전 기관 합산 1일 1천만원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점 직원, 스마트 상담부(1588-9999)로 문의 또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080호(2020.01.22),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까지

 KB 국민은행

“감독당국·금융사 간 구도 변화하는 과도기적 단계”

법무법인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장 연승재 변호사

금감원 8년 근무...최근 금소법 통과 금융사 경영 리스크 커져 당국 '정책·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건전성·수익' 상충 불가피

“기존 금융당국과 피감독기관인 금융회사 간 구도가 ‘선생 대 제자’였다면 법치행정정이 많이 강조되면서 기존 패턴이 변하고 있다. 그 안에서 일부 갈등이 발생하는 과도기적 단계다.”

법무법인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장에 새로 합류한 연승재(38·사법연수원 38기·사진) 변호사는 16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최근 금융감독 맥락을 이같이 짚었다.

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8년간 근무해온 만큼 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연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금감원 보험감독국에서 보험법규를 총괄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금융민원조정실, 분쟁조정국, 기업공시국 등에서 근무하며 은행, 증권 및 보험 전 권역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연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8년간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검사·제재 분위기 등 전체적 프레임이나 톤이 어떤지 자연스럽게 터득했다”며 “사안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법률적 관점에서 더해 정책과 소비자보호까지 고려해야 하는 기관인데 금융사는 건전성과 회사 이익을 동시에 이루려다 보니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트렌드에 대해서는 “다임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규제와 제조·판매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이 강화됐다”며 “소비자보호처 확대 등 소비자보호 기조 역시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져 금융사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제재와 과징금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를 향한 감독당국의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연 변호사는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금융사는 크게 영업파트와 후선파트로 구성되는데, 브레이크가 점점 말을 안 듣기 때문



에 금융사고로 이어진다”며 “리스크 업무가 수익이 나는 곳이 아니다 보니 영업 업무에만 성과를 치켜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성과와 요인을 잘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보험 시장의 경우 해당 상품 판매 역할이 단순 보험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망이 큰 역할을 한다”며 “이 부분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가 규제 안으로 편입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의 경영리스크는 커졌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 변호사는 “각 기존 업권별 별도 규제를 적용해 복잡했던 것을 통합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비슷한 규제를 모아 놓고 유통화해야 일관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어 법치행정이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연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국내 1호 디지털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 허가 심사, 롯데손해보험 대주주 변경승인 및 전체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고,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종 보험영업과 모집규제 관련 검토와 개선 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검사제재, 인수·합병, 보험계약이전, 자산운용, 모집, 보험상품 등 보험업법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비롯해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이동채·이상원·금춘수 3명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이동채(왼쪽부터) 한화 부회장, 이상원 상아프론테크 대표, 이동채 에코프로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동채 에코프로 대표이사, 이상원 상아프론테크 대표이사, 금춘수 한화 부회장이 ‘제47회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상공인과 근로자 236명에게 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성운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내외 상공인 등 20여 명만 참석해 소규모로 진행했다.

금탑산업훈장은 신산업·신기술분야에서 혁신 성과를 거둔 기업인 3명에게 돌아갔다. 이동채 에코프로 대표이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소재와 대기오염물질제거 촉매를 국산화해 소재 산업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원 상아프론테크 대표이사는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고, 내열성과 윤활성이 높은 불소수지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와 2차 전지 부품을 개발했다. 금춘수 한화 부회장은 42년간 한화그룹에 몸담으면서 사업 내실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수출 증대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에는 이용우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부사장은 해외 사업 분야에 몸담으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기업과 국가의 이미지를 높인 점을, 서 대표이사는 자동차 차체 경량화와 내열과 충격에 강한 소재인 프리프레그 기술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탑산업훈장에는 박경환 SK에너지 부사장과 이금옥 조선탄화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철탑산업훈장은 우석민 명문제약 회장, 석탑산업훈장은 이정석 우리별 대표이사와 전병찬 에버다임 대표이사에 돌아갔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당선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지협) 회장이 이상훈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지협은 17일 서울 성동구 소재 치과의사 회관에서 열린 제31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에 기초 4번 이상훈 후보가 6580표(52.1%)를 득표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상훈 당선자의 바이스 후보로 출마한 장재완(연세치대 88년 졸, 현 치협 홍보이사), 홍수연(서울치대 93년 졸, 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김홍석(경희치대 93년 졸, 전 치협 재무이사) 원장 등도 선출직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SK 울산공장이 위기 극복 전진기지 될 것”

박경환 총괄 ‘도전과 응전’ DNA·‘클린 CLX’ 사회적 가치 강조

“울산 공장이 이번 위기 극복의 전진기지가 되겠다.”

박경환<사진> SK 울산Complex(CLX) 총괄은 18일 SK이노베이션의 보도채널 스킨노 뉴스(Skinno News)와의 인터뷰에서 “울산공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IMF, 글로벌 금융위기, 유가 급락 등을 겪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총괄은 울산CLX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표현했다. 수직계열화, 지상유전을 건설하는 고도화 설비, 외국자본과의 합작 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쳤고, 글로벌

별 위기 때도 울산CLX는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경험들은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 온 울산CLX 전 구성원들이 가진 DNA에서 나온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박 총괄은 울산CLX의 미래로 감압잔사유 탈황설비(VRDS)와 디지털변혁(DT), 사회적 가치(SV) 등을 꼽았다. 이 중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더 안전하고 깨끗한 울산CLX”를 만들기 위해 작년 부터 ‘클린 CLX’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울산CLX 모든 구성원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



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 CLX란 △클린 에어 △클린 워터 △클린 일터 △클린 라이프 등 4가지 영역에서의 환경 캠페인이다. 박 총괄은 “올해는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우리금융그룹, 굿네이버스 통해 취약계층 학생 210명에 후원금

우리금융그룹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굿네이버스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원금은 굿네이버스 사업장을 통해 선정된 210여 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손태승 회장은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심하지 않고, 씩씩하고 건강한 미래를 그려나갈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이화미래전략기금’ 20만 유로 한국바스프, 이화여대에 후원



한국바스프는 16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에서 열린 기금전달식을 통해 이화여대에 이화미래전략기금 20만 유로(약 2억6000만 원)를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기금협약식에는 김영률<사진 오른쪽> 한국바스프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고, 이화여대에서는 김혜숙<왼쪽> 총장, 최대석 대외부총장, 최유미 대외협력처장, 유세경 기획처장, 최형석 전 기획처부처장이 자리했다.

이화여대는 한국바스프의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기부자명예의전당’에 한국바스프의 이름을 새기고, 동창회기념관 135호 ‘SW튜터링 Lounge’에 후원현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저커버그 “전세계 직원 4만5000명에 1000달러씩 지급”

사내메모 통해...소기업 지원도

미국 최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직원에게 현금 1000달러를 지급한다.

1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사진>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사내 메모를 통해 전 세계 직원 4만

5000명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올 상반기 직원 평가를 통해 전직원이 최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기업 지원책도 내놴. 페이스북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을 겪고 있



는 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싶으면서 총 1억달러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소기업에 대상으로 현금 및 광고 게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0개 이상 국가의 약 3만 개 소기업에 평균 3333달러가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행정정책과장 정창성
-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사회복지과장 임철연 △전자정부정책과장 서주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책리더양성과장 제현탁
-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사혁신국장 이인호 △윤리복무국장 이정민
-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이사 △윤항본부장 김필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승진 △통신전파연구실장 김현수
- ◆코리아타임스 △편집국 국장석 부국장대우 김지수

부음

역사 대중화 이끈 재야사학자 이이화 씨
 꾸준하고 왕성한 연구와 집필 활동으로 역사 대중화를 이끈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李維和) 선생이 18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1936년 대구에서 주역 대가인 야산 이달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대학에서 사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역사를 서술해 역사학의 높은 장벽을 허문 재야사학계의 별이었다. 개인이 쓴 한국 통사로는 가장



분량이 많다는 22권짜리 ‘한국사 이야기’를 비롯해 다양한 역사 교양서를 펴냈다.
 고인은 계간지 ‘역사비평’을 펴내는 역사문제연구소 창립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그는 제2대 연구소장을 지냈고,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씨와 아들 이용일 씨, 딸 응소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오전 10시. 02-2072-2010
 ▲전상수 씨 별세, 전해정(런던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송식(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장) 씨 부친상 = 1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2-3410-6909

자본시장 속으로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리서치센터 내 리더십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성과 위주로 관리를 앞세우는 용장형 리더십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솔선수범하는 덕장형 리더십이 요구될 것이다. 리더가 정보를 독점하면 권력이 되지만, 정보를 공유하면 소통이 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

지난해 말 '82년생 김지영'과 함께 여의도에서는 '70년대생 리서치센터장'이 회자됐다. 여러 증권사의 신입 리서치센터장이 선임됐는데, 필자를 포함해 대부분 70년대생이었다. 세대 교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달리 보면 리서치센터가 변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요구될 것이다. 증권사 수익 구조의 변화, 법인 영업 환경의 변화, 투자 자산의 변화, 한국 산업 경쟁력의 변화, 고객과 소통 방식의 변화에 맞게 리서치센터도 발빠르게 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일 수 있다.

필자는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밀었던 2002년 여의도에 발을 디뎠다.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의 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펀드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람과 더불어 명예와 보상도 뒤따랐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공룡된 목표를 향해 갔다. 증권사들은 여전히 브로커리지 위주의 사업 구조였고, 법인 영업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 리서치센터는 법인 영업을 위해 존재했다. 어떤 이

리서치센터, 변화에 대한 요구

는 애널리스트를 펀드매니저의 지적 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업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증권사 손익 구조에서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IB(투자은행) 부문의 기여가 크게 확대됐고, 법인 영업 기여도는 미미해졌다. 법인 영업 시장은 2011년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 시대를 정점으로 내리막 길이다. 기관 투자의 주도권도 전통적인 액티브 펀드에서 ETF(상장지수펀드) 등 패시브 자금과 연기금으로 넘어갔다. 액티브 펀드가 장기간 고객들의 수익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리고 있다. 소통 방식도 문자화된 보고서 위주에서 동영상 등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이차전지를 포함한 IT(정보기술)와 Non-IT 업종 간 밸류에이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반

영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성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리서치센터의 역할과 업무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실적 기여도가 큰 수익 부서에 리서치를 포함한 회사의 자원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인 영업 이외에 리테일본부 등 다양한 부서를 대상으로 리서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식, ETF, 리츠, 인컴자산 등에 걸쳐 글로벌 리서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밀레니얼 세대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방송 및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애널리스트의 자질로서 분석력과 집필력 이외에 '예능감'도 요구된다.

한국의 여러 산업의 경쟁력이 정체됨에 따라 업종별 투자 아이디어도 부족하다. 이른바 '컬래버(collaboration)' 보고서를 통해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팀 간, 업종 간 협업을 강

화해야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애널리스트로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통찰력 있는 보고서를 생산해야 한다.

리서치센터 내 리더십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성과 위주로 관리를 앞세우는 용장형 리더십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솔선수범하는 덕장형 리더십이 요구될 것이다. 리더가 정보를 독점하면 권력이 되지만, 정보를 공유하면 소통이 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서치센터가 젊어져야 한다.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사고와 행동이 젊어져야 하고, 역동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더욱 낮은 자세로 고객, 기업, 수요 부서를 만나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돈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을 쫓는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들에 혁신을 주문하고,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즐겨 쓴다. 증권사의 리서치센터가 예외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CEO 칼럼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사업이라 한다.

PPP는 지역경제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한다. 미국 워싱턴D.C.는 공공이 원하는 제안요구인 RFP(Request For Proposals)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 양측의 역할과 준수사항을 알 수 있어 시간이 단축된다.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는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서 PPP의 새로운 흐름과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

불균형 개선, 사회적 포용, 경제적 이동 등의 도시문제를 PPP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은 혁신적 해법은 지역에 필요한 결과를 낸다. 미국 정부는 전국 8700개 저소득층 지역에 민간자본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 사업을 하고 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통한 도시개발

민간과 공공의 필요 용도가 융합하면 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복작대는 명소가 된다. 미국 캔자스시티는 민간사업에 공공요소(공연장)를 반영해 '캔자스시티 라이브(Kansas City Live)'라는 명소를 만들었다.

PPP의 다양한 개발 모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살맛 나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작은 동네일수록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채택해 지역만의 독창성을 갖추기도 한다.

또한 PPP 협상 내용과 자금 계획은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촉매제와 축복이 담겨야 주민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잭슨빌(Jacksonville)시는 시민들에게 Lot J 프로젝트 효과를 명확히 설명해 환영받고 있다. 5억 달러가 소요되는 엔터테인먼트 시설 개발사업에 재규어 회사 오너가 4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PPP 사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민간회사도 탄력적이어야 한다. 금융도 실

현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이 변하기에, 초기 계획의 탄력적 조정은 당연하다.

민간 개발회사가 원하는 것은 개발 가능한 토지다. 주차장, 철도 야적장, 공중권 등 용도 전환이 가능하고 시장 수요가 있으면 환영한다. LA 교통공사인 MTA는 민간과 철도차량 부지에 복합 개발을 PPP로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 맨해튼 인근의 철도야적장인 허드슨야드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든 대도시의 공통적 숙원사업인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PPP로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은 세액공제와 기회특구 제도를 주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주택위기를 많이 언급하면서, 용도 제한에 묶였던 토지가 고밀도 주택으로 개발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는 공문화에 힘입어 저층형 일반주거지역을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고 있다.

한 지역에서 하는 경제발전 PPP 사업은 도시 내 다른 여러 공동체의 집단 응원

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아마존은 원래 뉴욕시에 수만 개 일자리를 포함한 제2 캠퍼스를 제안했지만 결렬됐다. 해당 지역은 환영했지만, 다른 지역들은 민간기업 특혜라고 반대했다. 결국 아마존은 워싱턴D.C.를 택했다.

PPP의 문제점도 있다. 수익 지향의 민간과 민원을 의식하는 공공이 융합하기는 쉽지 않다. 진보주의와 반기업 정서가 높은 지역에서는 PPP 추진이 부담된다. 중간에서 협상 구조를 짜는 전문가도 부족하다. 필요 금융이 조달된다는 확신도 없다.

시사점을 정리하자.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해야 할 공공사업은 많다. 그러나 재정과 보유한 공공부지에 한계가 있다. 민간의 자금과 땅을 활용해야 한다. 물론 민간 개발사업에 인센티브인 용도 전환, 용적률 상향, 세금 감면 등을 제공해야 한다. PPP는 민간과 공공이 절충하는 사업이다. 이를 민간 부동산의 인프라 역할이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데이비드 리빙스턴 명인

"끝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니 자신의 목적에 도달했다." 영국의 선교사·남아프리카 탐험가. 빅토리아 폭포와 잠베지 강을 발견하였다. 켈리매네 주재 영국 영사로, 니아사 호 등을 탐험, '노예사냥' 실태를 폭로함으로써 노예 무역 금지에 이바지하였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13-1873.

☆ 고사성어 / 각자위정(各自爲政)
저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말. 전체와의 조화나 타인과의 협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는 뜻. 좌씨전(左氏傳) 평전(評傳)이 원전. 춘추시대, 결전을 하러 앞두고 송(宋)나라 대장 화원(華元)이 사기를 복돋우려고 양고기를 나눠 주었으나 전차를 모는 양짐(羊斟)에게만 전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튿날 화원은 전차를 정(鄭)나라 병력이 허술한 쪽으로 돌리라고 명령했으나 병력이 밀집한 쪽으로 몰려 양짐이 한 말. "어제 양고기는 장군의 뜻대로 한 일이고, 오늘 이 일은 내 생각대로 한 것이요." 화원은 생포되었고, 송나라 군대는 대패했다.

☆ 시사상식 / 디지털세(digital tax)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이지만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도입 찬성을, 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은 반대하고 있어 EU 내부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영국은 올해부터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양념
옛말은 '약념'. 한자 '약념(藥念)'이 본디 어원인지 취음 한자인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국어사전에는 일단 없다.

☆ 유머 / 자선파티의 핵심
자선파티에서 배우 장동건이 못생긴 여자와 일부러 춤을 추었다. 기자들이 춤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유를 물었다. 그의 쿨한 대답. "자선파티잖아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연일 고무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한 동안 매일 수백 명이 증가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일 100명대로 떨어지고, 급기야 15일부터는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이란의 신규 확진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배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31번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18일을 기점으로 짧은 기간 내 확진자가 수천 명대로 늘어나면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하루 1만 명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 보유와 검사 속도를 높인 드라이브 스루 운영, 접촉자·유증상자 발견

후 신속한 격리·치료,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성숙된 시민의식 등이 추가 확진자를 감소시키는 큰 힘이 됐다. 이러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이 부러운 시선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무적 상황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방심은 곧 큰 화(禍)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 출입과 종교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주말이 되면 야외공원과 실내 놀이공원 등을 찾은 시민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실제 기자가 지난 주말 취재차 청주의 한 공원을 찾아보니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로 붐볐다.

서병곤 정치경제부/sbg1219@



방심은 최대의 적!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타이완 '경영의 신' 왕용칭(王永慶)

사업 성패의 관건은 '세세함'에 있다

왕용칭(王永慶)은 1917년 타이완 타이베이(臺北)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상은 대대로 중국 푸젠성(福建省) 취안저우(泉州)에서 정주하고 있었으나 그의 증조부 대에 이르러 엄청난 가문과 기근으로 타이완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부친은 차밭을 지으며 가계를 꾸려나갔지만 집안 경제사정은 좋지 못했다. 더구나 그가 9살 되던 해 그의 부친은 병에 걸려 몸져눕게 되어,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가정을 책임져야 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더 이상 진학을 하지 못하고 15살 되던 해 다른 사람의 차밭 잡부로 일하다가 타이완 남부에 위치한 한 조그만 소도시의 쌀집에서 일했다. 이듬해 집에서 200위안을 빌려 스스로 쌀집을 차렸다. 그러나 장사는 잘되지 않았다.

쌀집에서 시작된 경영능력

그도 그럴 것이 부근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쌀집이 있었고, 나머지 쌀집들도 모두 단골들이 튼튼했다. 하지만 이때 그의 뛰어난 경영능력이 발휘되었다. 당시 쌀 가공업은 기술이 낙후되어 쌀겨가 섞여 있거나 모래나 돌이 적지 않았지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매일 같이 쌀을 팔기 전에 쌀을 철저하게 검사해서 쌀겨와 돌들을 골라냈다.

또 그 무렵에는 쌀을 사서 모두 자기 자신이 집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젊은 사람이야 큰 문제가 없었지만 늙은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왕용칭은 이 점을 파악하고 판매된 모든 쌀을 집까지 배달해 주었다. 배달할 때도 쌀독을 청소해주면서 직접 쌀을 쌀독에 부어줬다. 만약 오래된 쌀이 있으면 먼저 새로 산 쌀을 아래에 붓고 오래된 쌀을 위에 붓는 방식으로 오래된 쌀을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리고 사정이 어려운 집은 외상으로 쌀을 주고 월급날에 받았다. 그의 가게는 다른 가게보다 문을 빨리 열고 늦게 닫아 최소한 4시간은 더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얼마가 지나자 단골이 크게 늘어났고, 하루에 고작 12말도 채 팔지 못했던 가게는 몇 달이 채 안 되어 하루에 100여 말을 팔게 되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자 큰 쌀정미공장을 열게 되었다.

목재사업 거쳐 플라스틱회사 창업

2차세계대전은 일본의 패망으로 끝난 후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한 타이완의 경제는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건축업의 기세가 가장 강성했다. 왕용칭은 예민하게 이 기회를 포착하여 목재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의 계산은 적중하여 이익이 크게 났고 그는 일약 지역에서 유명한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목재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특히 시멘트, 방직 그리고 플라스틱

분야의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1954년 과감히 목재사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30만 달러로 타이완플라스틱공사를 세웠다. 타이완 최초의 플라스틱회사였다.

당시 왕용칭의 친구들과 유명한 화학자는 왕용칭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투자한다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사실 왕용칭의 이 행동은 이미 치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결정한 것이었다. 그는 플라스틱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가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청하고 자문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비밀리에 일본에 건너가 현지조사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회사를 세운 3년 뒤 처음 100톤을 생산했으나 겨우 20톤만을 파는데 그쳤다. 동업자조차도 그만두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여 회사의 소유권을

안의 거대한 상업제국을 창조해냈고, 타이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1984년 그의 자산은 45억여 달러에 이르렀고 1년 영업액은 30억 달러였는데, 이는 당시 타이완 국내총생산(GDP)의 5.5%에 해당하였다. 그의 타이완플라스틱그룹(포모사그룹) 기치하의 9개 업체에는 7만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압박관리와 장려관리 병행

수십 년 동안 세계 화공업계는 줄곧 왕용칭에게 '경영의 신'이라는 존칭을 붙여왔을 만큼 그의 경영방식은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타이완에서는 그의 경영관리 경험을 가장 실용적인 교과서로 삼았다. 그는 경영관리에서 '압박관리'와 '장려관리'의 두 가지 관리 방법을 견지하였다.

'압박관리'란 기업 전체와 모든 근무자들에게 긴박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는 적절한 압박을 받거나, 혹은 주도적으로 도전해나가는 것은 한 개인의 왕성한 생명력을 더욱 체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직원에 대한 요구는 엄격했지만, 동시에 그는 회사에 기여하는 직원에게는 아낌없이 커다란 보너스와 보상을 제공하였다. 그는 언제나 "이윤을 창조하면 직원이 향유한다"는 방식을 적용시켰다. 그의 회사 직원은 모두 자신의 노력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왕용칭은 "더욱 큰 공헌을 영원히 추구하자"를 기업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그의 직원들은 모두 사력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 "1+1=3"의 효과를 낸 것이다.

'희망 초등학교' 1만 곳 건립 계획

언젠가 사람들이 그에게 "세세한 일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맡기고 큰일에만 전념하시는 것이 어떤지요?"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그는 "나는 큰일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일에 더 심혈을 기울입니다. 성냥개비 하나는 1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집 한 채는 수억 원을 넘습니다. 그러나 성냥개비 하나가 집 한 채를 모조리 태울 수 있습니다." 77년에 걸친 사업 인생에서 그는 변함없이 매주 100시간 이상을 일했다. 세밀한 곳에 특히 강했던 그는 자신이 거느린 세계적 거대기업의 세세한 내용 모두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고 있었다.

2002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그는 2008년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평생 결코 사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단히 근검절약하였다. 그런 중에도 사회자선 사업과 교육 사업에는 아낌이 없었다. 2008년 쓰촨(四川) 대지진 때는 1억 위안(한화로 약 900억 원)을 의연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생전에 1만 곳의 '희망 초등학교' 건립 계획을 실천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후손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계획에 의해 중국 대륙의 빈곤지역에 무려 3300여 개의 학교를 세웠다.

모두 사들였다. 그에겐 그만의 계산이 서 있었다.

치밀한 준비와 정확한 판단

당시 일본의 경우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3000톤이었는데, 일본의 인구는 타이완의 10배였다. 그는 타이완에서 지금 플라스틱이 팔리지 않는 이유가 수요가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너무 높은 데 있고, 따라서 생산을 더 많이 해서 단가를 낮춤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그는 다시 플라스틱 가공공장을 세워 남아 있는 플라스틱 원료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판매하였다.

가격이 낮춰지자 판로가 자연스럽게 열렸다. 그가 세운 두 회사 모두 큰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하였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초창기 1200톤에서 100만 톤까지 상승하여 그의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생산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의 사업은 석화 원료, 플라스틱 가공, 섬유, 방직, 전자재료, 반도체, 자동차, 전기, 기계, 운수, 생물과학, 교육과 의료사업으로 무한 확대되었다. 특히 석화공업 영역은 원유의 수입, 수송, 야련, 가공제조부터 완성유 소매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전후조류의 영역을 일체화하여 하나의 완성된 산업네트워크를 창조해냈다.

이렇게 왕용칭은 수십 년에 걸쳐 1조 위



타이완플라스틱그룹(포모사그룹) 창업자로 세계 화공업계로부터 '경영의 신'이라 불리던 왕용칭은 교육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그가 생전에 1만 곳 건립을 목표로 시작한 '희망 초등학교'는 후손에게 이어져 지금까지 중국 빈곤지역 3300여 곳에 세워졌다.

시설

외환보유액도 불안, 통화스와프 급하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19일부터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종전 40%에서 50%로, 외국은행 지점은 200%에서 250%로 오른다.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화유출이 가시화하고 있는데 따른 '컨틴전시 플랜'의 첫 단계 조치다.

선물환포지션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중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은행들에 외화자금 유입이 늘어나 자금공급 여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완화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외화조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금융시장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는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7일 전 거래일보다 2.47% 내린 데 이어, 18일에도 81.24포인트(4.86%) 폭락한 1591.20을 기록해 1600선이 깨졌다. 종가 기준으로 2010년 5월 26일(1582.12) 이후 가장 낮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외국인이 매도한 주식 물량은 14조 원에 육박

한다.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다. 금융시장이 실업음판을 걷는 형국에 앞으로 변동성 또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실물경제의 마비는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게 틀림없다. 공포에 질린 시장이 추락하고, 무너지는 시장이 공포를 더 키우는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은 필연적으로 외국 자본 유출을 불러온다. 원·달러 환율은 18일 1245.7원을 기록했다. 2010년 6월 11일(1246.1원) 이후 원화 가치가 가장 낮은 상태로 떨어졌다.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버팀목은 외환보유액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월 말 기준 4019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럼에도 충분하지는 않다. 더구나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로 무역흑자 폭이 줄면서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추세다. 외환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일시에 자본이 빠져나가는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위기를 맞는 것은 순식간이다.

어느 때보다 외환관리가 중요한 때다. 기축통화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가 우선적인 대안이다. 자국 통화로 상대 국가 통화를 맞교환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의 가장 든든한 안전판이다. 과거 금융위기 때 한국은 미국·일본과 300억 달러씩의 스와프 계약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 지금 이들의 통화협력은 중단된 상태다. 통화스와프 확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건강 100세 첨단기술이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

수술실의 모습이 점차 바뀌고 있다. 과거 정형외과 수술에는 망치·드릴·톱 등 흡사 목수를 연상케 하는 도구들이 즐비했지만, 요즘은 로봇이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접한다. 최초 수술용 로봇은 1992년 IBM에서 만든 로보닥(Robot+Doctor)이다. 로보닥은 마코로봇을 비롯해 컴퓨터 보조수술 분야의 내비게이션 수술이나 3D 프린팅을 이용한 수술처럼 정형외과 인공관절 수술에 있어 최첨단 의료기술이다.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손상된 관절부위의 뼈를 절삭해 특수재질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게 한다. 이때 인공관절을 환자의 다리 중 심축에 맞게 정확하게 삽입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인공관절의 수명도 길어진다. 이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수술의 정확도다.

로보닥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전 '오소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은 수술 전 미리 3차원 CT를 촬영해 환자의

뼈모양과 관절변형의 정도를 파악하고 어떤 임플란트(인공관절 대체물)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지, 얼마나 뼈를 깎을지 등 3차원 가상현실에서 수술을 미리 해봄으로써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이 수술계획 데이터는 로보닥으로 전송되며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을 통해 뼈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절삭한다. 로봇수술은 수술 전 미리 수술 부위를 3차원 CT 촬영을 통해 로봇이 계산해 놓은 좌표값에 따라 수술 내용을 결정한다. 이로 인해 0.1mm 이하로 오차를 줄이면서 보다 정확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로봇 팔에 부착한 가는 카터를 통해 뼈를 빠르고 정확하게 절삭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적고 절개 부위가 적어 회복도 빠르다.

본원이 설립한 로봇관절 연구소도 초기에는 로봇을 인공관절 전치환술에만 적용했지만 이후 부분치환술과 근위경골 절골술에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형외과 전반적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환 이촌택병원 병원장





준법감시인확인필 제19-1-0565호
(브랜드전략파트, '19.12.16)

요즘 시대, 걸으면 걸을수록 보험료도 내려가는 시대

걸으면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삼성화재 애니핏으로
보험료 결제는 물론,
다양한 상품 서비스 구매까지
삼성화재 포인트 몰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일상에 건강은 기본, 다양한 혜택까지 더한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365일 당신의 걷기 파트너

삼성화재 건강보험
피보험자 누구나

걸기만 해도 쌓이는
애니포인트
*걸음수 목표 달성시 1년 최대 6만원



플레이스토어 혹은
QR CODE를 찍고
애니핏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적립한 포인트로
보험료 결제



전용 포인트몰에서
다양한 물품 구매

*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를 참고해 주세요.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